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 연구

FGI·IDI 기초분석 보고서

뮤지컬

2025.05



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Tel : 061)900-2150
연구 기획·진행 : 뮤지컬 연구협의체(박병성, 김덕희, 황진수, 한하경)
작성 : ㈜케이스탯리서치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2. 조사 목적 1
3. 조사 설계 및 내용 1

제2장. 조사 결과

[그룹1] 교육기관 7
[그룹2-1] 예술 창작자 13
[그룹2-1] 예술 창작자 : 저작권자 14
[그룹2-1] 예술 창작자 : 실연자 20
[그룹2-1] 예술 창작자 : 프로듀서 26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33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38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 온라인 39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46
[그룹4] 관람객 51
[그룹4] 관람객 : 뮤지컬 마니아 관객 52
[그룹4] 관람객 : 업계 관계자 57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64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지원 관계자 65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70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 민간 투자기관 75
[그룹6] 지역 뮤지컬 관계자 80
[그룹7] 주제별 84
[그룹7] 주제별 : 뮤지컬 비평 85
[그룹7] 주제별 : 라이선스 뮤지컬 91
[그룹7] 주제별 : 해외시장 진출 97

Contents

표 목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1
[표 1-2]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2
[표 1-3]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3
[표 2-1] 참석자 명단 [그룹1] 교육기관 7
[표 2-2] 소그룹 구성 : [그룹2-1] 예술 창작자 13
[표 2-3]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 창작자 : 저작권자 14
[표 2-4]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 창작자 : 실연자 20
[표 2-5]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 창작자 : 프로듀서 26
[표 2-6] 참석자 명단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33
[표 2-7] 소그룹 구성 :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38
[표 2-8]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 온라인 39
[표 2-9]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46
[표 2-10] 소그룹 구성 [그룹4] 관람객 51
[표 2-11] 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뮤지컬 마니아 관객 52
[표 2-12] 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업계 관계자 57
[표 2-13] 소그룹 구성 :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64
[표 2-14]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지원 관계자 65
[표 2-15]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70
[표 2-16]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 민간 투자기관 75
[표 2-17] 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뮤지컬 관계자 80
[표 2-18] 소그룹 구성 : [그룹7] 주제별 84
[표 2-19]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 뮤지컬 비평 85
[표 2-20]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 라이선스 뮤지컬 91
[표 2-21]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 해외시장 진출 97

01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행기관 :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기간 : 2024년 8월 13일(수) ~ 2024년 12월 5일(목)
■ 조사방법 : FGI 및 심층면접

2. 조사 목적

■ 정부의 예술위원회 역할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장르별·기능별 지원사업들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잘 작동했던 것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모색의 근거 수집 필요
■ 이에 뮤지컬 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연구협의체(뮤지컬 분야, 관련 지원정책·연구 전문가)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여 FGI 및 IDI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조사 설계 및 내용

■ FGI는 총 7개의 상위그룹, 16개의 하위그룹으로 진행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1] 교육기관 ('24.09.09, 예집 세미나실2)	대학, 민관 아카데미, 신진 연출	ㅇ 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정규/민관 교육과정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01, MA002, MA003, MA004, MA005(서면자문)
[그룹2-1] 예술 창작자 ('24.08.13, 예집 세미나실3)	G1. 저작권자	ㅇ 창작 인력풀 및 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 뮤지컬 작품과 세계시장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06, MA007, MA008, MA009, MA010

[표 1-2]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2-1] 예술 창작자 ('24.08.19, 예집 영상회의실)	G2. 실연자	ㅇ 대극장/대학로 활동 영역, 창작자/배우 페이 및 활동 기간, 매니지먼트 장/단점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E ㅇ 참석자 : MA011, MA012, MA013, MA014
[그룹2-1] 예술 창작자 ('24.08.21, 예집 세미나실3)	G3. 프로듀서	ㅇ 뮤지컬 창제작과 시장, 마니아 관객, 공정성 및 분야 내 위계질서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15, MA016, MA017, MA018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24.09.02 예집 영상회의실)	무대 디자이너, 스태프, 조연출	ㅇ 직군별 인력 현황, 범위와 역할, 작업의 노동시간과 대가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19, MA020, MA021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관계자 ('24.09.26 대학로 1층 회의실)	G1. 홍보, 마케팅, 온라인	ㅇ 분야 전반 인력 및 예산 현황, 작품 유형별 홍보, 마케팅 전략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22, MA023, MA024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관계자 ('24.09.11 예집 영상회의실)	G2.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ㅇ 극장 현황, 지역 유통 일반, 지역 공연 환경, 지역 내 유통과 관객 개발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25, MA026, MA027
[그룹4] 관람객 ('24.09.25 예집 세미나실1)	G1. 뮤지컬 마니아 관객	ㅇ 뮤지컬 마니아 관객 및 관람 문화, 관람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F, MA-D, MA-E ㅇ 참석자 : MA028, MA029, MA030, MA031
[그룹4] 관객 관련 전문가 ('24.10.30 예집 세미나실1)	G2. 뮤지컬 업계 관계자	ㅇ 관객 변화양상 및 증감 추세, 마니아관객, 관객층 개발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32, MA033, MA034, MA035

[표 1-3]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1.06 예집 세미나실1)	G1. 뮤지컬 분야 공공지원 관계자	ㅇ 기관별 뮤지컬 지원 현황과 특징, 공공지원의 중점 타겟 대상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36, MA037, MA038, MA039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0.23 대학로 1층 회의실)	G2. 뮤지컬 분야 민간지원 관계자	ㅇ 민간 지원단체 현황 및 특징(목적 및 이유, 차별성, 성과와 기여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40, MA041, MA042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1.06 예집 세미나실2)	G3. 민간, 공공 뮤지컬 투자기관	ㅇ 기관별 뮤지컬 지원 현황과 특징, 공공지원의 중점 타겟 대상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43, MA044, MA045, MA046
[그룹6] 지역 뮤지컬 관계자 ('24.12.05 예집 세미나실2)	기획사, 극장, 축제 관계자	ㅇ 지역 뮤지컬 제작·유통 및 시장 현황, 공공 공연장 현황, 지역 뮤지컬 지원사업 현황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D, MA-E ㅇ 참석자 : MA047, MA048, MA049, MA050
[그룹7] 주제별 ('24.11.22 예집 세미나실1)	G1. 뮤지컬 비평	ㅇ 한국 뮤지컬 비평 현황 및 기대역할, 아마추어 비평, 비평가 양성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51, MA052, MA053, MA054
[그룹7] 주제별 ('24.12.03 예집 세미나실1)	G2. 라이선스 뮤지컬	ㅇ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 현황, 활성화, 제작사 협회 설립 및 역할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B, MA-D, MA-E ㅇ 참석자 : MA055, MA056
[그룹7] 주제별 ('24.11.26 예집 세미나실1)	G3. 해외시장 진출	ㅇ 해외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국가별 문화적 차이,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MA-A, MA-C, MA-D, MA-E ㅇ 참석자 : MA057, MA058, MA059, MA060

02

조사결과



[그룹1] 교육기관

1.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14:00 ~ 16: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3. 참석자 명단

[표 2-1] 참석자 명단 [그룹1] 교육기관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1)]	-	-	-
참석자(n=5)	대학	MA001	남	50대	20년
	대학	MA002	남	50대	30년
	대학	MA003	남	50대	25년
	민간	MA004	남	50대	25년
	고교	MA005(서면자문)	여	40대	15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 정규 교육 과정
- 민관 교육 과정
- 보완할 점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직군별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교육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1) MA-E의 경우, 연구 용역사 진행 담당자로 성별, 연령대, 경력에 대해 작성하지 않음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정규 학위 과정과 민간 프로그램의 공존

1) 예술고교 교육 과정

■ 전국 약 30여개의 예고 중 연기를 기반으로 하는 학과에서는 뮤지컬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뮤지컬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보통 연극영화과, 연기과 안에 뮤지컬 전공을 두며, 연기 수업이 메인, 뮤지컬 관련 수업을 부수적으로 편성

■ 뮤지컬 산업의 성장으로 뮤지컬과 지원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뮤지컬 배우만을 목표로 하는 인원은 적은 편임

"뮤지컬과 정규수업 커리큘럼은 크게 연기, 음악전공실기, 무용전공실기, 공연실습 수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 외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전공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005)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 요즘 학생들은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길 원하고 현장에서도 그러한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 다양한 매체에서 연기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뮤지컬과 보다 연극영화과나 연기과가 더 많으며, 뮤지컬 시장 역시 아직은 한정적이기에 [...]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MA005)

2) 대학 교육 과정

■ 동서대, 백제예대부터 뮤지컬 학과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뮤지컬 산업 호조 전망으로 음대나 연극영화과가 뮤지컬과로 전환하는 등 증가하였으나, 투자 비용이 크다는 점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감소함

■ 뮤지컬 창작자 양성 관련 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거의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수업이 있는 대학도 소수임

"2000년에 이제 동서대학교가 4년제 그리고 백제예대가 분배해서 두 개 학교가 같이 시작을 했고요. [...] 뮤지컬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음대 또 연극영화과 또 이런 학교들이 앞다퉈서 정말 뮤지컬과로 다 전환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한 5~6년을 지나가면서 뮤지컬과의 이제 문제점이 연극영화과하고 다른 게 이 투자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단점이 됐죠 [...] 코로나를 전후하면서 이제 급격히 떨어졌죠. " (MA002)

"(창작자) 학위 과정으로는 아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할 거고요. 관련된 수업이 있는 곳은 홍대, 중대 등 일부 학교가 있으시고, 이름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인 것 같고요." (MA001)

3) 민간 교육 과정

■ '불과 얼음'이라는 뮤지컬 작가·작곡가 양성 프로그램을 민간 차원에서 20년 가까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창작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음

"불과 얼음이라는 곳이 있는데 뮤지컬 작가와 작곡가를 양성하는 곳이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의 작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작품 탄생 요람이라고 할까요?" (MA003)

나. 생태계 이슈

교육 기관 부족,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한 양성 어려움
현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난 존재

1) 양성 기관 부족 및 환경 미비

■ 창작자 양성 기관이 극히 적고, 음악 및 작곡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함
- 뮤지컬 연출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연출가는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배울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뮤지컬 창작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의 부족도 큰 문제임

■ 코로나 이후 입학 지원률이 급감하면서 많은 지방대학이 뮤지컬과를 폐과하거나 축소함

"저도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현장에서 하나씩 시행착오로 배우면서 왔습니다." (MA004)

"뮤지컬 쪽이 다른 연극이나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론적인 베이스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육과정으로 만들다 보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교습 노하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구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그 커리큘럼을 어떤 이상적인 커리큘럼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칠 선생님 그쪽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MA001)

"코로나 전후하면서 급격히 지원이 떨어졌고 지금 지역의 뮤지컬 이름은 뮤지컬과가 전부 다 그냥 연극영화과에 뮤지컬 입시 붙는 정도고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정말 몇 개 없습니다." (MA002)

2) 양성 비용 및 수익 문제

■ 뮤지컬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며, 특히 음향 및 무대 장비 비용 부담이 커서 지방대학에서는 유지가 어려움

■ 창작자 양성은 배우 양성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대학에서 학과 개설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연극과 연극학과 이렇게는 극장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으면 큰 각목하고 합판 페인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뮤지컬은 그때부터 필요한 장비들이나 기본적으로 음향을 불러온다든지 장비를 보유하게 돼도 무선 마이크 극장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투자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MA002)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배우 양성은 되지만 창작자 양성은 잘 안 되는 겁니다." (MA003)

3) 창작자 처우 문제

■ 조연출 등 스태프의 처우가 열악하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

"지금 대학로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조연출이에요. 일은 고되고 보수는 적고 고생은 엄청 해야 되는데 언제 연출로 입봉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MA004)

4) 디지털 기술 발전

■ 다양한 영상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할 것임

“다양한 영상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무대공연을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 또한 매체와 가까워지고 영상을 활용한 전달 및 소통도 많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뮤지컬 영화 산업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여겨져 뮤지컬 교육 또한 이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 및 카메라와 영상을 통한 뮤지컬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뮤지컬 공연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곧 다가올 미래에는 AI 교육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 뮤지컬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MA00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정책 지원·민간 협력 및 실무 경험 강화 필요

1) 창작자 교육 강화

■ 연출과 창작자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 마련 필요

■ 창작자를 위한 협업 중심 교육 강화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강사진 확보가 필요

■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배분 필요.

- 지역 대학이 창작자 양성을 위한 별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
- 현재 국책 사업을 활용하여 창작자 양성 전공을 신설하고,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뮤지컬 연출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MA004)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어떤 행보를 가고 있는가를 볼 때도 학생들을 최대한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MA001)

"이번에 글로컬 사업이 됐고 글로컬에 아예 그 기획 안에 넣었었던 게 한예종을 벤치마킹한 서사 창작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 지금은 국책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MA002)

2) 예술고교 뮤지컬 교육 강화

■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뮤지컬 교육이 도움이 되고, 강화가 필요

- 배우 연기 역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술이므로 소통과 화합을 배울 수 있는 분야

■ 뮤지컬 배우 지망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장소, 선생님, 지원, 기회 제공 필요

- 전공 전임 교사 인력, 실기실 확보 필요

“예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배우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배우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빠르게 도움을 주며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뮤지컬 교육이라고 여겨집니다. [...] 또한 뮤지컬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술입니다. 개성이 강한 예고 학생들에게 타인과의 소통과 배려, 협동과 화합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MA005)

“우선적으로는 양질의 뮤지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또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수요에 맞는 필요한 선생님과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등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MA005)

3) 대학 학사 제도 운영의 유연성

■ 기존 커리큘럼에 깊이 있는 수업을 더하고, 학생들이 폭넓은 분야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유연한 교과과정 운영을 제안

■ 무전공 입시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 인재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

"각각 개별적으로 듣는 수업들이 결국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거에 깊이를 조금 잘 파고 그러면서도 좀 다양하게 런칭할 수 있는 그런 맵을 그리는 게 저희 커리큘럼의 방향입니다." (MA001)

"무전공 입시 제도를 도입해서 실기 전형도 보고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MA002)

3) 민간 교육 강화

■ 민간 교육 기관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확대 필요.

■ 민간 교육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기초부터 탄탄한 창작 교육을 제공해야 함.

- 학교와 달리 민간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

"민간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트렌드를 따를 필요 없이 기초를 탄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학점을 따야 하니 원하지 않는 수업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MA003)

"민간에서 창작자를 키우려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MA003)

4) 실무 교육 확대

■ 제작사와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무 교육 확대 및 공공 기관이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필요

■ 산학협력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작사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MA004)

"지역 축제에 주제 공연을 만들게 예를 들면 섬꽃 축제 그러면 섬꽃 이야기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 음악도 만들고 콘텐츠를 무대에 올리는 실전 경험을 쌓게 합니다." (MA002)

“경험이 중요한 뮤지컬에서 공연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학생들이 사용할 극장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 극장 외에 다양한 외부극장과 연결되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현장의 경험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MA005)

[그룹2-1] 예술 창작자

1. 구성

■ G1 저작권자, G2 실연자, G3 프로듀서의 3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2] 소그룹 구성 : [그룹2-1] 예술 창작자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저작권자	2024년 8월 13일(화), 17:00 ~ 19: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분야 전문가 5인
G2. 실연자	2024년 8월 19일(월), 17:00 ~ 19: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분야 전문가 4인
G3. 프로듀서	2024년 8월 21일(수), 17:00 ~ 19: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분야 전문가 4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저작권자 : 창작자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은 어려운 상황, 연출가와 안무가 전문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음

■ G2. 실연자 : 신인에 대한 진입장벽과 기존 배우들의 경력단절 문제 속에서 배우들의 기회와 공정성 개선 필요

■ G3 프로듀서 : 분야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부재, 작품 제작은 주로 제작사 주도하며, 현재 시장 과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생태계 이슈

■ G1. 저작권자 : 창작자의 생계가 불안정한 편이며, 소극장과 대극장 사이의 중극장 생태계가 부재함

■ G2. 실연자 : 오디션 기회 축소, 개런티 불균형, 복지 미비 등 불안정한 뮤지컬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필요

■ G3 프로듀서 : 고착화된 시장, 대관 경쟁, 제작비 부담 속 공공지원과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언급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저작권자 : 창작자와 작품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식 필요

■ G2. 실연자 : 신인에 대한 진입장벽과 경력단절 문제 속에서 배우들의 기회와 공정성 개선 필요

■ G3 프로듀서 : 개런티 부담 해소, 지속적 지원, 해외 시장 선점 등을 통한 생태계 개선과 이를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함

[그룹2-1] 예술 창작자 : 저작권자

1.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17:00 ~ 19: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3. 참석자 명단

[표 2-3]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 창작자 : 저작권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5)	극작	MA006	여	30대	8년
	극작	MA007	여	40대	10년
	음악	MA008	여	40대	17년
	연출	MA009	남	40대	24년
	안무	MA010	남	40대	19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창작 인력풀 및 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
- 창작자의 노동 대가와 삶의 질

■ 뮤지컬 분야 대내외 요소
- 뮤지컬 작품과 세계 시장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법, 제도
- 분야 내 사회적 위계
- 창작자 교육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창작자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은 어려운 상황,
연출가와 안무가 전문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음

1) 창작자 양성 관련

■ 창작자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은 어려운 상황임

- 독해 리딩 프로그램 확대: 최근 10년간 독해 리딩 프로그램이 증가하며 신진 창작자가 초연 기회를 얻기 쉬워졌지만, 지속적인 발전 기회는 부족함
- 재공연 및 후속 발전 문제: 신작 개발이 반복되며 재공연을 통해 작품을 개선하거나 대형 무대로 확장할 기회가 부족함

"독해 리딩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한 한 10년 안쪽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창작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부유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작품 수도 굉장히 많고 또 작품을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창작진들의 수는 굉장히 많으나, 이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공연화하기까지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자생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 그래서 진입 장벽 자체는 낮으나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어렵지 않나." (MA006)

"신작에는 굉장히 공공지원을 많이 하는데, 재공연을 하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수정하는 그 기간에는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게 없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 또 신작을 개발하고 또 신작을 개발하고 계속 이게 좀 뭔가 소모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는 그 지점이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MA007)

2) 전문 인력풀 부족

■ 연출가와 안무가 분야에서 전문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고 도제식 훈련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이 부재함

- 안무가 부족: 한국 뮤지컬의 특성상 안무가는 작품의 드라마적 요소를 이해하고 배우와 소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무가는 매우 적음
- 연출 인력 부족: 조연출 경험을 통한 연출가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극장에서 바로 대극장으로의 도약이 어려워 연출 경험의 단절이 문제로 지적됨

"저희 안무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뮤지컬만의 특성이 이제 드라마적인 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배우는 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제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그리고 저희는 이게 또 실력이 대단하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작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보여준 게 또 별로면 다음 작품 상태가. 돼버리니까 일 자체는 저희 안무 쪽은 구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 후학 양성을 하기도 힘들다라는 개념이 맞죠." (MA010)

"조연출은 프로덕션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책임 진행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까지를 거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조연출을 몇 년 동안 데리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조연출을 어떤 연출로 데뷔시켜줄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조연출 하다가 컴퍼니로 이전했다가 이렇게 막 이제 이쪽 분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기 때문에." (MA009)

3) 대형 뮤지컬 제작 인력 부족

■ 해외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주요 이유는 마케팅 효과와 한국 창작자 풀의 한계 때문임
- 해외 아티스트는 브로드웨이, 유럽 등에서의 경력이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며, 대극장 제작 경험이 풍부해 신뢰를 제공함
- 국내 연출가는 대극장 경험이 부족하거나 검증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해외 아티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의 경우 대형 뮤지컬 제작 경험을 가진 작가와 연출가가 부족하며 특히 중극장 생태계의 부재로 인해 대형 뮤지컬 경험을 쌓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됨
- 대극장 작품 제작을 위한 창작자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입 장벽이 높고, 결과적으로 해외 인력 의존도가 증가함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 대극장 창작 뮤지컬이 몇 편이나 만들어진다고, 거기에서 한 50% 이상을 외국 연출가들이 가져가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한국 대극장 뮤지컬 연출가는 솔직히 소수인 거죠" (MA009)

나. 생태계 이슈

창작자의 생계가 불안정한 편이며,
소극장과 대극장 사이의 중극장 생태계가 부재함

1)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보수 체계

■ 창작자, 특히 작가와 작곡가의 생계가 불안정하며, 로열티 및 보수가 낮아 직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함

■ 작곡가와 작가는 창작에만 전념하기 어렵고, 플레이어(연주자) 역할이 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창작자들이 생계를 위해 레슨, 연주, 기타 직업을 병행하거나 라이선스 작품 참여로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음

■ 연출, 작곡, 안무 등 주요 창작자의 보수가 현장 스태프나 크루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며, 노동 대가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가 필요함

"사실 창작을 하는 작가로 살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죠. 1년에 하나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는 절대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 이 로열티가 환산해 보면 어떤 플레이어보다도 작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600석도 안 나오는 극장에서 매진을 친다고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불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작가로 사는 게 훨씬 어렵지 않을까." (MA006)

"그러니까 내가 창작자이면서 이제 대극장 라이선스가 돌아가면 거기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필요한 플레이어 파트가 그 음악, 연주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창작을 하면서 라이선스 작품의 조감독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 연주자로 가는 경우는 이제 소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안무나 조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품 자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에서 받는 금액 자체는 이제 많지 않아서 사실 그래도 플레이어로 받는 그 페이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MA008)

"사실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가끔 예산표를 보면서 현타가 올 때가 조연출이나 조안무나 작가 개런티보다 크루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현장 스텝이고 거기는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MA010)

2) 중극장 생태계의 부재

■ 한국 뮤지컬 생태계의 경우 중극장이 부족하여 창작자들이 중간 규모의 제작 경험을 쌓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소극장 창작 뮤지컬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대극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제작 경험을 제공할 기회가 부족함

■ 중극장 규모의 제작 환경이 있다면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실험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 문제로 제작사들이 중극장 규모의 제작을 기피함

-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중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극장 아니면 대극장인데 만약에 토월이든 어떤 700석 정도의 어떤 중간급 규모의 공연들이 있으면 꼭 대극장이 아니어도 작가의 능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견 금액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 수입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대극장으로 크게 가거나 아니면 소극장에서 작게 해서 중간에서 수익 내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중간 규모급의 공연이 거의 없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고" (MA009)

"그게 처음에 창작 시스템 자체가 신인 작가 작곡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거의 소극장만 써요. 그리고 대극장은 선정되기도 힘들고 공연화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작가들의 사이즈 자체를 그렇게 스타 [...] 그렇게 해야 작가, 작곡가는 빨리 소극장에 데뷔해서 소극장 무대에서라도 자기 작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스타트하는 사이즈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다시 대극장 사이즈를 써봐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거죠" (MA009)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제작사에서는 이제 사실 중극장은 돈은 대극장이 들고 뭔가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대극장 가서 어떤 많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중극장들이 정말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MA008)

3) 재공연 및 디벨롭 지원 부족

■ 공공지원이 신작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작품의 재공연과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됨

- 공공부문이 창작자의 작업 초기뿐만 아니라, 재공연 및 대형 무대로의 확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근데 신작 개발은 되게 많은데 사실 신작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좀 재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나 이제 중앙이나 항상 신작에는 굉장히 공공지원을 많이 하는데, 재공연을 하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수정하는 그 기간에는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게 없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MA006)

"지방도 마찬가지로 신작에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의. 지역은 유난히 신작에 지금 가산점이 많고요. 재공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MA007)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자와 작품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식 필요

1) 장기적 지원 필요

■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와 작품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지원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제공해야 함

> "그래서 오히려 공공재단에서는 이게 1개년, 2개년, 3개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어떤 한 작품을 계속 개발하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주셔야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신인 창작자나 신인 연출, 신인 안무가 또한 몇 개년에 걸쳐서 이게 공개해 보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게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싶어요." (MA006)

2)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

■ 지역기관이나 공기업과의 커넥션을 형성하여 지역 홍보 콘텐츠 등을 만드는 등에 필요한 작가나 창작 인력을 매칭해주는 중간 역할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됨

> "지역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이제 그 지역의 홍보비나 이런 예산이 있을 거라서 그걸 문예위가 대표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라, 아니면 이 공간을 안동 하회 마을을 통한 이머시브 공연을 만들어라 애초에 이런 거를 숙제로 내버리는 거죠." (MA009)
>
>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문예위나 공공기관의 예술가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커넥션이 좀 있으면 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MA009)

[그룹2-1] 예술 창작자 : 실연자

1.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17:00 ~ 19: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4]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 창작자 : 실연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배우	MA011	여	40대	20년
	배우	MA012	남	40대	25년
	배우	MA013	여	30대	11년
	매니지먼트	MA014	남	40대	4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암묵적 활동 영역의 구분 : 대극장 vs 대학로
- 창작자 페이 및 활동 기간
- 매니지먼트사 소속·관리의 장단점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배우 개런티
- 배우의 자기관리 및 재교육
- 배우 복지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신인에 대한 진입장벽과 경력단절 문제 속에서
배우들의 기회와 공정성 개선 필요

1) 분야 진입과 교육

■ 오디션 기회가 부족하고, 서류 심사에서 경력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 신인들이 경력을 쌓기 어렵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도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요즘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아예 서류 자체가 이제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 그러니까 뭐가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지만, 기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장이 없으니까." (MA011)

"사실은 오디션으로 뚫고 새로운 배우가 데뷔를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또 뮤지컬 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수요는 많은데 이제 자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데뷔를 할 수 있는, 제 주변 동생들 후배들만 봐도 그 데뷔를 위해서 도전만 하다가 불꽃이 꺼져버리는 식어버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MA013)

2) 대극장과 대학로, 활동 영역의 암묵적 구분 존재

■ 대극장과 대학로의 요구하는 연기 스타일과 음악적 에너지가 다름

- 배우들이 특정 극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해당 영역에 머물게 되는 경향

"대학로 대표 공연이라면 요즘은 빨래 같은 작품인데, 대극장은 오페라의 유령처럼 아주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이잖아요. 음악 스타일이나 소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맞는 배우들이 대극장에 가고, 대학로는 또 대학로대로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MA012)

3) 남녀 배우 격차

■ 경력과 역할이 동등해도 남성 배우가 더 높은 개런티를 받는 사례가 있음

"비슷한 롤의 친구였고, 그 친구도 조연이고 저보다 하물며 경력도 어린 동생이었는데, 남자 배우인 친구가 그 친구의 실언으로 알게 됐는데, 제가 훨씬 적은 페이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남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MA011)

4) 멀티 캐스팅 일반화

■ 관객의 배우 선호도를 충족할 수 있으나 배우의 체력 부담, 일정 과중으로 공연 퀄리티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함

"멀티 캐스팅 시스템이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에 제일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이 시스템이 배우 표팔이거든요. 대학로에서는 특히 팬 위주로 돌아가니까 멀티 캐스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MA012)

"제가 공연할 때 트리플 캐스팅이었는데, 당일에 한 배우가 아팠고 나머지 두 배우도 스케줄이 안 돼서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MA011)

5) 정년

■ 뮤지컬 배우의 정년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년 배우의 역할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신체적 문제보다는 역할 부족과 제작비 문제로 인해 중년 배우들의 기회가 감소

"대학로는 남자 2인극, 4인극 같은 젊은 층 남성 배우 위주의 작품이 많아서 중년 배우, 특히 여성 배우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너무 안타까워요." (MA011)

나. 생태계 이슈

오디션 기회 축소, 개런티 불균형, 복지 미비 등
불안정한 뮤지컬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필요

1)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오디션 기회 축소로 신인 배우 발굴 어려움

- 특정 배우와 제작진 간의 지속적 협업으로 시장 유동성이 감소함

"작품마다 고정된 배우들이 있어서 오디션도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새로운 배우들이 진입하기 힘든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MA012)

2) 배우 개런티

■ 스타 배우의 개런티 과다와 앙상블·신인 배우의 낮은 보상 문제 존재

"스타 캐스팅으로 흥행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이해되지만, 앙상블 배우나 신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너무 부족해요. 작품에 기여하는 만큼의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MA014)

3) 배우 복지

■ 공연 중 부상 및 사고 예방·보장 체계가 미흡함

■ 보험, 대출, 연금 등 장기적인 복지 제도가 부족함

-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연이 끝나면 곧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 장기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움

"뮤지컬은 4대 보험이 없죠." (MA012)
“고용보험도 이제 들기 시작한 게 어차피 얼마 안 됐으니까.”(MA011)

“배우만 했으니까 이런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은행 가면 당연히 대출해 주는 줄 알았어요. 대출이 안 돼요. 아예 저 돈 잘 벌어요. 막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대출을 안 해줘요.” (MA01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정한 오디션, 균형 잡힌 개런티, 배우 복지 확립으로 뮤지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1) 오디션 기회 확대 및 공정성 보장

■ 신인 배우들을 위한 전용 공개 오디션 개최를 정례화하고, 경력이 부족한 신인들도 실력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오디션의 실기 중심 평가 강화

"지금은 오디션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었어요.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거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야 본인의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단계에서 아예 기회조차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MA011)

2) 대극장과 대학로 간 협업 및 시장 통합

■ 대극장과 대학로의 중간 규모 극장을 활성화하여 두 시장 간 교류 지점 마련 필요

"ㅇㅇㅇㅇㅇㅇ 공연 때 대학로와 대극장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서로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같은 뮤지컬을 하더라도 시장이 다르면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MA011)

3) 배우 개런티 격차 해소

■ 신인 및 앙상블 배우의 최소 개런티 기준 마련 필요
- 연습 페이 도입 제안

■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을 기준으로 한 투명한 개런티 체계를 마련하여 격차 해소

“코로나 그 시절에 연습하고 공연이 엎어지고, 연습하고 공연이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때 배우들이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배우들은 연습 페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연습 페이가 없을까?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 또한 일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앙상블 친구들의 페이로 계산을 했을 때 연습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해도 공연 페이를 다 했을 때 충족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페이가 적어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연습 페이가 있으면 우리도 더 열심히 더 좋은 퀄리티로 배우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MA013)

"회당 개런티의 차이가 소극장에서도 소극장에서 이제 회당 개런티를 많이 받는 배우님들이 대극장 주연 배우님들만큼 받으시잖아요.." (MA014)

4) 배우 복지 체계 확립

■ 배우를 위한 보험, 대출, 연금 등을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 필요

■ 배우 은퇴 후 강의, 연출, 멘토링 등으로 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 전환 지원 필요

"중년 배우들은 은퇴 이후의 경로가 불명확해서 더 불안함을 느껴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배우로서 은퇴 후에도 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MA011)

5) 공공부문 예술지원

■ 지원 체계 개선과 확대

- 신인 배우와 소규모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대관료 지원, 제작비 보조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작품 제작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지원 체계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

- 지원금 배분 과정을 투명화하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함
- 특정 영역이나 스타 중심의 지원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균형적으로 아우르는 접근 필요

"대학로는 지금 대관 시스템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소규모 제작사들은 극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신인 배우들도 설 기회가 없어요. 대관료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MA014)

"공공 지원이 특정 대형 제작사나 몇몇 스타 배우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신인 창작자와 배우들에게도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MA012)

6) 예술위의 역할

■ 복지 제도와 교육 지원

- 배우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뮤지컬 배우와 창작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공연 다양성과 접근성 강화

- 중소형 극장과 창작 뮤지컬을 지원하여 공연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함
-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함

"대중이 창작 뮤지컬이나 다양한 공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해요. 특정 대형 공연만 지원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012)

[그룹2-1] 예술 창작자 : 프로듀서

1.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17:00 ~ 19: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3. 참석자 명단

[표 2-5]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 창작자 : 프로듀서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프로듀서	MA015	남	40대	13년
	프로듀서	MA016	남	50대	30년
	프로듀서	MA017	여	50대	20년
	프로듀서	MA018	남	50대	25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뮤지컬 창제작과 시장
- 공정성 및 분야 내 위계질서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마니아 중심 대학로 뮤지컬
- 뮤지컬 공연장 대관 실태 및 문제
- 뮤지컬 부문 공공지원 필요성
- 뮤지컬 관련 법안
- 해외 시장 개척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분야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부재
작품 제작은 주로 제작사 주도하며, 현재 시장 과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 분야 진입과 교육, 인력 현황

■ 뮤지컬 프로듀서로의 진입은 체계화된 교육과정 없이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거친 후 스스로 성장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 영화계와 달리 프로듀서, 감독, 제작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교육이나 양성이라는 개념에서는 뮤지컬에서의 프로듀서 개념을 확립하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교육과정으로서는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공연 관련 일을 하다가 책임지고 있는 범위 본인이 기획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제작 피드를 하든 이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프로듀서로 성장하는 형태가 거의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016)

"그렇네요. 한국은 지금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제작자의 개념으로 돼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 그러니까 경영의 개념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려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 대한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거기는 이제 한국은 아직 없는 거고." (MA018)

2) 뮤지컬 창제작 방식

■ 창작자 주도의 작품 개발과 제작사 주도의 IP를 통한 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현재 제작사가 주도하는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작자가 주도 하는 작품의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비중은 제작사 중심으로 작품이 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죠." (MA016)

'왜냐하면 새로운 창작자와 새로운 소재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작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는 그러한 창작자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그 경계와 뭐라 그럴까 그걸 좁혀지지 못하는 것이 제작사만의 무슨 잘못이라든가 그런 입장 때문은 아닌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 정규 과목에서 제작사를 만나는 순간 갑과 을, 자기 걸 지켜라' (MA017)

"요즘 신인 창작자들 보면서 좀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내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에 더 열광하고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저는 결국에는 각각의 장단점보다 어쨌든 작품을 만드는 거의 목적지는 이 작품이 관객들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가 관객들이 지금의 관객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가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내가 쓰고 싶은 것인가는 그게 제일 앞단에 서면 안 되지 않나." (MA015)

3) 시장 과열

■ 뮤지컬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창작자와 제작사가 유입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어 작품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음

■ 시장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서 과도한 경쟁과 작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소위 '잘 팔린다'는 주제나 장르의 반복
- 극장에 대해서도 경쟁이 붙어, 소규모 작품은 극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공연 만드는 것처럼 진입 장벽이 낮은 데가 없을 거예요. [...] 그리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생겨야 되거든요. 안 빠져나가 유입만 된다는 거지 안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작품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MA016)

'제가 술자리에서 들은거는 어떤 PD인지 누군지가 던졌다고 하는데 창작자들한테 중세시대 데미안 그다음에 동성 3개 키워드를 던져주면 돼요. 창작하라고 이게 성공한다고 지금 잘 팔린다 요 3개를 던져주고" (MA017)

"극장들마저도 이제는 경쟁이 과열이 돼가지고 스타 캐스팅이라든가 장기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장기 공연을 하지 않고 대단한 매체 스타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일단 내년 가을에 두 군데가 다 떨어졌는데" (MA017)

나. 생태계 이슈

고착화된 시장, 대관 경쟁, 제작비 부담 속 공공지원과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언급

1) 대관 현실과 공연장 부족 문제

■ 참석자들은 대학로 소극장과 서울 대극장 모두 수요에 비해 대관이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특히 대극장 공연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공연을 지속해야 하지만 대관 일정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 극장에 대한 유통업체의 독과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저는 아예 근데 대학로 진입을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년 2년 다 대관이 되어 있고 라인업이 일단 많은 회사들이 연단위로 잡고 있고 [...] LG에서 공연을 많이 했던 이유가 대학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학로에서 왜 공연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MA017)

"대학로는 예술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대학로 안에 있는 예술 극장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게 정부가 보호해 주고 있죠. 예술지구로 해서 그래서 예술지구의 기준에 따른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혜택은 다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학로에 있는 극장들 지금 보시면 싹 누가 다 인수하고 있어요? 유통업체들이 다 인수하고 있죠. [...] 작품들은 반드시 그 유통 채널에서 티켓을 오픈을 해야 되고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를 알음알음 제도가 없는 이 시점에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MA016)

2) 스타 캐스팅 중심의 시장 구조와 제작비 상승

■ 스타 배우의 캐스팅 여부가 작품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제작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

■ 이는 제작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다른 파트에 분배되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균형이 무너짐

- 제작사가 스타 배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배우를 기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작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가 할 거리를 찾는 거지 작품을 찾는 게 아니에요." (MA018)

"저희가 제작비를 평균 한 회당 대극장 작품으로 지금 어느 회사든 비슷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회당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우 게런티 비중이 몇 프로냐 라고 있을 수 있다면 예전에는 30% 언더였는데 이게 지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 전체적인 제작비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부작용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MA016)

3) 뮤지컬 부문 공공지원 및 법 제정의 필요성

■ 참석자들은 뮤지컬이 상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예술의 부분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창작 뮤지컬이나 신작 개발, 신진 창작자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제정과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뮤지컬은 산업과 예술이 지금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점적으로 보면 갈수록 이제 지원이 아니고 진흥이 돼야 되겠죠. 지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한테 이렇게 구호물품 주는 게 지원이 되는 거고 진흥이라는 거는 애가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잘 클 수 있는 애한테 하면 그러니까 진흥을 이제 산업을 이제 진흥이라고 해서 [...]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K-뮤지컬이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순수 예술 지원적 측면에서 산업 진흥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게 범위는 맞겠죠. 영화도 산업인데 독립 영화를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MA016)

“뮤지컬 진흥법이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이 산업이 정말 육성 사업이라 그러면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산업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 이 뮤지컬 진흥법이 통과돼서 뮤지컬 산업 진흥의 기초가 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꼭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인 최종적인 거는 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MA016)

4) 해외 시장 진출

■ 내수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근래 아시아권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즘 해외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열려야만 사실 이 시장이 여기서 포화 상태에서 힘들더라도 여기서 살아남아서 IP가 인큐베이팅이 되면 시장을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거죠." (MA018)

“지금 K-뮤지컬 이런 것들이 다 나무를 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뮤지컬이 중국에서 30개씩 했다. 3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제가 대략 세보니까 30편 정도 돼요. [...] 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수 시장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내수 시장 끝났어 이미 왜 끝났냐 우리는 인구가 딱 정해져 있고 [...]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나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분명히 시장에 도움이 될 거고“ (MA01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개런티 부담 해소, 지속적 지원, 해외 시장 선점 등을 통한 생태계 개선과 이를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함

1) 개런티 증가에 대한 공공의 개입 필요

■ 뮤지컬 제작비는 스타 배우 개런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 개런티가 3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제작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제작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새로운 배우 발굴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제작사 협회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제작 입장이니까 이제 본인들이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 (그 배우들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 이게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처럼 그러니까 이 조합들의 서로 회의를 통해서 약간의 자정 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면 약간의 공공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 어떨까라는 의견들은 지금 내고는 있죠." (MA018)

2) 창작 뮤지컬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창작 뮤지컬은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창작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우리가 많은 정부 지원 쇼케이스 또는 문화재단들이 지원해 주고 많은 작품들이 개발되죠. 하지만 대부분 한 번 정도 무대에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MA016)

3)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 필요

■ 지원을 받은 결과로 공연을 올려야 하는 지원사업은 공연장 문제 등 한계가 있고, 대부분 혜택은 제작사에 대한 제작 지원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결과물이 공연이 아닌 창작의 과정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기존에 그런 창제작 이런 지원 사업은 제작사들 위주의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 혜택을 받는 것도 이 제작사들 제작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 결과물이 공연이 되어야 되는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어요. 공연장 때문에 그런데. 1년간의 지원 사업의 결과가 포트폴리오였다는 거는 철저하게 과정에 대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지원 사업으로 비로소 제가 3~4년 동안 혼자 작업했던 거를 비로소 돈을 써가면서 창작자들을 섭외를 할 수 있었던 거고 [...] 그 과정을 제가 외부에 계속 공유를 하다가 정동이라는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지금 공연화가 되는 거거든요.” (MA017)

4)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 필요

■ 당장의 이익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지금 한국 중국에 소극장이 이렇게 많이 나가네 뭐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한국 작품들이 일본에도 이제 조금씩 나가기 이제 시작을 해요. 어느 것이든 선점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 그리고 K-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과일을 누가 따는지 제발 좀 쳐다보지 마시고 나무를 계속 좀 심으시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MA016)

"적어도 우리 한국이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향후 몇 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언젠가 이제 그것마저도 뺏기지 않을까 [...]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국지 시대에서 한국이 무척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정말 이때 잘 준비를 해야 저도 그래서 한국 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MA018)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1.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6:40 ~ 18:4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6] 참석자 명단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3)	조명	MA019	남	50대	39년
	조연출	MA020	여	30대	13년
	무대	MA021	여	50대	27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세부 직군별 인력 현황 및 작업 범위와 역할, 팀 구성 방식
- 작업의 노동 시간과 대가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공정한 노동 권리 보장
- 작업 강도 및 처우
- 공정 보상 : 저작권 보호
- 활동 무대 확장 현황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교육 및 인력 공급 체계 미흡, 직급별 역할 범위 구분 모호

1) 신규 인력 진입 장벽

■ 과거에는 극장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무대미술 아카데미를 통해 진입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체계가 사라져 진입로가 모호해짐
- 구인이 주로 소개로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진입로가 없음
- 신규 진입 환경이 부족하고 기존 인력만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 발생

■ 교육 내용과 현장 업무의 미스매치 존재
- 신규 진입 시 업무 수행에 어려움 경험

"저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졸업 후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 대학 시험을 봤고 [...] 공연예술부의 무대계에 조명 파트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 무대미술 아카데미 1기를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도제식 교육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 대체적으로 서울예술대학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많이 스텝들로 활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잘 안 잡혀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MA019)

"조연출을 시작하게 되면서 [...] 조안무, 조음악 감독님, 아니면 다른 감독님들이 항상 조연출 없니?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소개로 다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채용 절차 같은 건 없어요." (MA020)

"회사에 저는 이런 이런 경력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오는데 거의 연결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희 쪽으로 진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교육은 이론 중심인데 현장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MA021)

"대학으로 딱 들어오면 애들이 다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대극장에서의 작업과 소극장에서의 작업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MA021)

2) 직군별 역할 정의 부재

■ 직군별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조연출을 하러 왔는데, 여기저기 오퍼도 좀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니까 롤에 대한 정의가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히 이제 페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 현실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인데. 결국엔 이런 게 다 역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MA020)

나. 생태계 이슈

현장과 교육의 괴리, 낮은 보수, 롤의 불명확성이 지속적인 인재 유입을 방해

1) 창작 조력자 활동 기회 감소

■ 코로나 이후 창작극이 줄어들면서 무대 디자이너와 스태프의 활동 기회가 줄어듦

"2019년도 코로나가, 우리나라 무대 예술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야, 리스크, 원래는 이쪽 계통이 리스크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쪽에서 자꾸 뭔가를, 뭐야, 새로운 걸 창출시키고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계속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었고 창작극에 대한 시도도 줄어들었어요." (MA019)

2) 직군별 역할 정의 부재로 인한 처우 미흡

■ 조연출, 무대 디자이너 등 직군별로 역할과 직급 체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직업적 위치와 인정이 모호함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이 어렵고 경력을 쌓기 어려움
- 역할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함

"무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명 이상의 어시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봤자 결국엔 크루인 거예요. 디자인 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애들은 현장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니까 접근하기 쉬운 크루 해볼래요, 소품 크루 해볼래요, 뭐 이거 해볼래요, 이렇게 진행들이 많이 됐는데." (MA021)

"한 개만 더. 아까 지금 조연출 파트가 사람을 못 구해서 너무 난리다. 저희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몸값도 높아져야 되고, 수요가 많으면 사실 이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MA02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교육과 현장 연계 강화, 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 필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지원이 절실

1) 현장과 연계한 교육 시스템 마련

■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현장 인력 공급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장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제식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함

- 교육과정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그 무대미술 아카데미라는 것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필요로 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팀에 가서부터 지원자가 없다고 없어졌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게 참 아쉽습니다." (MA019)

"이태리는 극장에서 공연 시스템을 다 계획을 해요. 3년제라서 3년전을 할 때. 그러다 보니 자기네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받아요. 받아서 걔네들을 안 되면 작품 프로젝트 하나라도 너네가 공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봐. [...]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MA021)

"기획팀은 지원금이 있어서 청년들을 인턴으로 받는데, 디자인 파트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 디자이너들도 인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 많은 친구들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MA021)

"저희들한테 저희 같은 예술가들한테도 배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예술가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문화예술위원회에다 제공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고용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도 더 배울 수 있을 텐데요." (MA019)

2) 역할별 관리 체계 마련

■ 각 분야별 조력자의 담당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정의 마련

- 그에 기반한 관리 체계 구축 필요(작품 규모별·역할별 최소 인원, 보수 등)

"조연출은 정말 필수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프로덕션마다 대우가 다 다르고,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MA020)

"무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트를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대극장은 어시스턴트 없이는 안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소극장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구조가 지속되면 젊은 디자이너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져요 [...] 저 같은 경우도 무대 디자인은 어시를 인정을 안 해요. 제 페이가 결정된 거 안에서 분리를 해요.." (MA021)

3)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조연출과 같은 보조 스태프를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스태프들이 자라갈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웹 기획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할 수는 없거든요. 고용해도 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증거 자료를, 증빙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너네들 인력을 보강해 봐, 그래서 너네도 회사에 150만 원씩 줄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컴퍼니 직원을 뽑는 거예요.” (MA020)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1. 구성

■ G1 홍보·마케팅, 온라인, G2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2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7] 소그룹 구성 :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홍보·마케팅, 온라인	2024년 9월 26일(목), 16:30 ~ 19:00	대학로 1층 회의실(1-14)	분야 전문가 3인
G2.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2024년 9월 11일(수), 17:00 ~ 19: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분야 전문가 3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홍보·마케팅, 온라인 : 홍보·마케팅 대행사의 필요성 존재, 분야 중간층 인력 부족, 즉각적 효과 중심의 홍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G2.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 뮤지컬 극장 부족, 수도권과 지역의 환경 차이 존재

나. 생태계 이슈

■ G1. 홍보·마케팅, 온라인 : 수익성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관객층 확대 필요, 최근 릴스 제작을 통한 홍보가 증가함

■ G2.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 대관 경쟁 상승과 지역 유통의 어려움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홍보·마케팅, 온라인 : 뮤지컬 시장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전문 대행사 육성·협력 강화 및 신규 관객 개발 필요

■ G2.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 대관 시스템 개선 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 개입 필요, 트라이아웃 지원, 인핸스먼트 제작 방식 언급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 온라인

1.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6:30 ~ 19:00

2. 장소

■ 대학로 1층 회의실(1-14)

3. 참석자 명단

[표 2-8]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 온라인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3)	홍보·마케팅(대행사)	MA022	남	50대	15년
	홍보·마케팅(제작사)	MA023	여	40대	21년
	홍보·마케팅(대행사)	MA024	여	40대	15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홍보·마케팅 분야 전반, 인력 및 예산 현황
- 작품 유형별 홍보·마케팅 전략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전문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최신 홍보·마케팅 트랜드 및 활용 플랫폼
- 홍보·마케팅 예산의 한계점 극복
- 마니아 관객 의존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뮤지컬 시장 데이터 활용 여부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홍보·마케팅 대행사의 필요성 존재,
분야 중간층 인력 부족, 즉각적 효과 중심 홍보로 변화

1) 대행사의 역할 및 필요성

■ 마케팅 대행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제작사 내부에 전담 인력을 두는 것에는 부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행사의 필요성이 강조됨

■ 제작사 - 대행사 간 고정된 업무 범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함

"회사에 IP가 여러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중으로 분명히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라. 신생 회사 같은 경우 IP가 확보가 되기 전에는 사실 제작사 업무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 대행사가 확실히 필요한 것이고." (MA022)

"사실 내부에 홍보 마케팅팀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나 분모들이 극소수예요. 현실적으로 회사 내에 보통 이제 10년 차 정도가 되는 직원이 한 명이 상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밑에 어쨌든 담당할 직원 1명, 2명이 최소 있어야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대표가 직접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안 한다고 봤을 때) 그 직원 한 명과 또 다른 두 명의 직원을 운영하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뮤지컬 제작사들이 우리가 아는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MA022)

"빅 프로모션 빼고는 (대행사에) 다 줬던 것 같고요. 다 주는데,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컨펌 과정이 다 있고요." (MA024)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주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이 현황에 맞춘 마케팅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제작사에 있는 대표 또는 거기 PD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영역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MA022)

2) 홍보·마케팅 인력 현황

■ 대리~과장급에 해당하는 중간층 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신입들은 너무 많고, 대리에서 과장급은 없고, 그 위에 또 이제 오래 버티고 앉아 있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있고. 신입(1~2년)은 많고, 중간(3년~7년) 사이는 떠나서 없고, 그중 오래 버티신 분(10년 이상)이 소수로 계시는 구조." (MA024)

"창업률이 높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고. 10년 차쯤 돼서 어느 정도 성공이나 다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일부는 회사에 계속 계신 분 있고, 아니고 대행에서 프리랜서 하는 분 있고, 제작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제작 회사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MA022)

"민간 기획사는 10년 차 이상은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딱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 대리급 정도의 친구들을 이제 늘 찾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별로 없고. 이제 구할 때 이제 저희가 TO가 있어서 이제 사람을 찾다 보면, 경력직도 막 신입도 막 넣어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신입을 뽑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MA023)

3) 홍보 방식의 변화

■ 과거에 비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

- 특히 소극장 공연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온라인, 매니아층에 포커스를 맞추게되는 경향이 있음

"공연이라는 장르 자체가 누구나 공연에 관심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보면 그 알고리즘으로 공연에 대한 영상이 뜨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작품을 보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극장 공연들은 좀 비용이 높은 올드 미디어 광고를 한다.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중소극장 공연은 (비용이 높아) 그런 광고가 현저히 줄고. 그 외에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매니아한테 좀 더 맞춰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MA023)

"영상 콘텐츠나 광고 콘텐츠를 만들면 이걸 어떤 플랫폼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체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타겟들이 볼 수 있게끔. 그들에게만 그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좀 더 비용을 많이 쓰고" (MA022)

"예전보다는 프로필 촬영할 때 스튜디오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조명팀이 따로 온다든지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영상은 제작은 이제 없어지고. 그 비용이 소비한 사람, 온 관객에게 주는 어떤 이벤트성 증정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전체적) 비용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줄지는 않고 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뀐거죠." (MA022)

나. 생태계 이슈

수익성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관객층 확대 필요
최근 릴스 제작을 통한 홍보가 증가함

1) 대행사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

■ 마케팅 대행사 구조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수익 구조를 가짐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행사 자체가. 왜냐하면 대행사는 사무실 운영비랑 이런 인건비가 이런 건 있는데.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개인이니까 본인의 월급보다는 많이 받으면 되는 식으로 가격 책정하는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분이 가격 책정한 금액대로 제작사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대행료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기업 형태로 보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MA022)

2) 관련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낮은 편

■ 분야에 관련된 교육과정은 있으나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인 교육이 있는 것은 좋으나, 교육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 분야라는 의견임

"교육과정은 MBC 아카데미도 있고, 스파크도 있고, 그런 공연 관련된. 근데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뽑지는 않죠.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사람을 뽑는 거는 그 상황의 어떠한 그냥 기운인 것 같아요." (MA023)

"이게 교육 기관이나 교육의 방식으로 숙련도를 높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내용 정도만 숙지하는 거지, 이게 현장에 와서도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생각을 얘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한 몇 년은 걸려요. 몇 년 전에, 그때까지 이제 공연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MA022)

3) 마케팅 분야 근무 환경 문제

■ 업무량과 노동시간에 비해 보상이 적고 이로 인한 인력 이탈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왜냐면 이게 효율적으로 뭔가 빨리 되려면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원을 들여오려면 저희가 또 인건비를 대행사에서 또 줘야 되잖아요. [...] 누구를 하나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 할 수 있는 시간과 이거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는 막 열의에 막 차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하고." (MA024)

"어쨌든 이 공연계라는 곳이 조금은 나의 열정에 비해서 보상은 적고, [...]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희생도 해야 되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MA023)

4) 제한된 관객층

■ 마니아 관객에 국한된 상황이 일반 관객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마니아 관객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내비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대학로를 대표하는 또 부정적인 워딩이 시체관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사실 나의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와서 내 시간을 소중하게 가져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숨 막히는 경험이." (MA023)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시체관극을 하는지, 그리고 시체관극을 너는 보통 사람이 와서 경험하면 너는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할 거야. 움직이지 않고 작품에 집중하니까 경험이, 이거를 몰입하는 그게 매력으로 받아들여. 왜냐하면 번지점프도 무서운데 뛰어내리는 걸 즐기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즐기는 코어가 되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고." (MA022)

5) 활용 플랫폼

■ 최근 릴스를 통한 노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 해당 방향으로 집중이 되고 있으나 성공적일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임

"(최근 홍보·마케팅 수단의 움직임은) 릴스죠." (MA024)

"사실 터지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알 수 없는. [...] 홍보는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오라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연습실 공개했었던 게 [...] 저희도 찾아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돈 주고 광고했냐, 그러는데 저희는 돈을 쓴 게 없단 말이죠." (MA02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뮤지컬 시장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전문 대행사 육성·협력 강화 및 신규 관객 개발 필요

1) 전문 대행사 육성

■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필요

"지금은 점점 대행사들의 발전한 성장 속도를 보면, 사실 PD 한 명만 제작사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대행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행사들이 가장 전문성이 좀 높아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사에서 어떤 큰 메인 컨셉을 잡는 그 역할까지, 사실 소수의 어떤 대행사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제작사가 이제 지금 대학로 작품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 하잖아요. 상주하는 직원을 두기에는 좀 운영이 힘든 거죠." (MA022)

"점점 이제 대행사가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한다든지, 기업으로서 아니면 가치가 높게 판단되면 대행료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좀 더 좋은 구조로 갈 것 같고. 저는 이 구조가 앞으로 제작사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대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MA022)

2) 제작사와 대행사의 협력 강화

■ 내부 홍보팀에서 맡아야 할 일과 외주 대행사에서 맡아야 할 일을 알맞게 구분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말 한 팀처럼 움직이는 그런 관계 설정이 딱 되어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MA023)

"루틴한 것들은 대행사에서 빠르게 쳐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제작사)는 여기서 빅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고 [...] 제작사랑 대행사는 엄청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업무 분장이 굉장히 나눠지고 [...] " (MA024)

"이게 잘 안 맞는 팀이랑 하면 겹친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이 대행사에서 역할을 못해주는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이게 잘 맞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MA022)

3) 재정 지원 필요

■ 제작 기금, 세금 혜택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모두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한 시즌에 올려지는 공연의 70%는 손실을 보고 기준. 이 손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이 산업이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되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씩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이제 제작사들과 프로듀서들과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 리스크를 관리해 주거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은 펀드, 모태 펀드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서 [...] 세금 감면. 많은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제작비 일부를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고. 브로드웨이에서도 소득, 결국은 그쪽에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MA022)

"지금 당장의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전 투자개념으로 장르의 복합, 관객의 융합이 될 수 있는 이벤트성의 목적을 가진 공적자금을 사용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좋겠다는" (MA024)

4) 신규 관객 개발

■ 신규 관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연 소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단 개선이 필요함

■ 어린 시절의 긍정적 경험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학생 관람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가격이 이게 이게 금액 대비 소비로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매니아와 다른 일반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보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MA022)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장르니까 신규 관객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공연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연으로 이렇게 지금 훨씬 이제 확대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올드미디어 광고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MA023)

"학생 단체의 지원들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그 감정이 어떤 직업군의 확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MA023)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1.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17:00 ~ 19: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9]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유통(중앙-지역)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3)	공연장	MA025	여	60대	30년
	공연장	MA026	남	50대	30년
	유통	MA027	남	50대	24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극장 현황
- 지역 유통 일반
- 지역 공연 환경
- 지역 내 작품 유통과 관객 개발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창작 가치사슬 독과점 우려
- 극장 운영 현황과 조건
- 지역 창작 작품의 전국 유통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뮤지컬 극장 부족,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 존재

1) 뮤지컬 극장 부족

■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은 부족한 편이며, 대학로 소극장이 소폭 늘기는 하였으나 공간의 퀄리티는 높지 않음

■ 대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극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1년 내내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다시 범위를 좁히면 아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작하시는 분들은. 늘 경쟁한다고 생각을 하고. [...] 대학로는 근래 들어서 몇 년 새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들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중소규모의 대학로에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면 숫자는 많아졌는데, 공연장의 퀄리티는 그닥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공연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좀 비정상적인 경쟁도 있고, 공연장에 공연을 만들 준비가 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부터 선점하려고 하는." (MA027)

"저희는 이제 대관만 하는 극장인데. [...]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완전히 확정을 하는 거예요. [...] 연말 같은 때는 경쟁이 심화한 5 대 1까지도 될 때가 있고. 근데 가을 시즌 또 이렇게 빌 때도 있어요. [...]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저희 극장은 한 2.5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경쟁률이." (MA025)

2) 수도권 - 지역 차이

■ 대학로에서 선호하는 작품과 지역에서 선호하는 작품이 다름

■ 지역 극장의 동력 부족 문제

"사실은 지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냉정하게 보면 아니요, 잘 보세요. 들여다보면 뭐가 가냐면, 대중성을 담보한 작품이 그나마 갈 수 있거든요. 그거라는 건 대학로에서 매니아들을 상대로 한 작품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지역에서 선호하느냐? 불가거든. 이게 달라요." (MA027)

"극장이 좀 동력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극장 동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획 공연도 아니고, 그냥 대관을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대관료나 극장이 챙기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극장의 임무는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공연장에 동력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고, 그 노력들이 없죠" (MA026)

나. 생태계 이슈

대관 경쟁 상승과 지역 유통의 어려움

1) 대관 경쟁 상승

■ 작품이 없어도 일단 극장을 선점해 두려는 제작사가 존재

■ 일부 극장은 티켓 예매처와 결합하여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연간 이 소극장의 작품들을 몇 편 이상, 매출액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작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극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베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기회가 주니까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다 그렇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그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관을 선점하고 있거든요." (MA027)

"조금이라도 좀 마켓셰어를 올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거에 관한 방법으로. 극장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시장의 건강성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티켓을 열심히 팔려고 하는 건 사실은 만드는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 에이전시에서 열심히 노출도 하고, 프로모션도 걸어야 되는데. [...]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지렛대로 티켓을 파는 데는 티켓을 열심히 잘 파는 실력으로 셰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마켓을.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MA027)

2) 지역 유통 어려움

■ 시장 규모 차이로 제작 및 유통 비용 회수가 어려움

■ 지역민의 극장 경험이 적어,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제작비 규모 내지는 지역의 시장과의 격차가 커서, 지원의 정책이 있거나 지역 예산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판매하는 티켓으로는 정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30%도 채 안 될걸요. 티켓 팔아가지고. 20%가 되려나" (MA027)

"지역은 대도시나 이제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어요. 극장 경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내가 뭘 즐겨야 될지를 모르고, 그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면" (MA02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대관 시스템 개선 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 개입 필요
트라이아웃 지원, 인핸스먼트 제작 방식 언급

1) 대관 시스템 개선

■ 준비된 작품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관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공연 유통 구조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 필요

"극장에 계신 분들이 극장을 내주는 우선순위를 좀 깐깐하게 봐주시면. 작품의 창작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캐스팅은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체킹이 된 후에 대관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못 잡는 경우가 생길 텐데. 1년 내내 가져간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MA027)

2) 지역 공연장 활성화

■ 지역민의 공연 경험을 향상시키고, 관객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지역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원과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함

"제가 여수 관객 개발만 그냥 한다, 나는. 그러니까 여수에서 관객들이 극장에 오는 경험을 살린다. 그래서 좋은 거를 그냥 보여주고, 돈을 내고 좋은 거를 보는 그거를 훈련한다. 그래서 되게 서울에서도 좋은 거. 가격도 괜찮고 좀 레퓨테이션이 있는 거를 계속했어요." (MA025)

“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극장에 대한 경험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역민들이 지역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연장에 오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공연계로 환수, 공공 공연장으로 환수하는 이러한 계기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는 대관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들이 너무 내부적으로 팽배해 있고. 그냥 극장 시설 관리도 전문적으로 안 하고, 그 예산도 이제는 점점 없어요. (MA026)

3) 지역 유통을 위한 공공재원 필요

■ 중소규모 뮤지컬 작품이 지역으로 유통되기 의해서는 공공 재원이 필수적임

"예전에 방방곡곡, 올해는 이제 유통 사업으로 되었죠. 근데 그 서포트가 없었으면 아마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되게 아껴서 해도 [...] 한 번 움직이면 한 번 뜨면 4~5천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관객층을 보유한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체 예산과 방방곡곡 예산으로 거의 70~80%, 80~90%는 메우실 거고 나머지는 티켓으로 커버를 하실 거거든요, 지역에서 우리 작품을 선정해서 가실 때. 그런 거니까 사실 티켓을 팔아 흥행 구조로는 움직이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특히 저희같이 중소규모는 더더군다나.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공 재원이." (MA027)

4) 트라이아웃 지원 필요

■ 신작을 창작하는 지원은 많으나 트라이아웃을 지원하는 부분은 부족함

-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극장을 트라이아웃을 위한 극장으로 사용하는 방향의 개선책이 제시됨

"신작들에 대한 도전들은 되게 많이 나와서 리딩 단계까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제대로 무르익어서 트라이아웃을 하고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첫 공연이 들어가는 이 단계가 우리가 좀 취약하거든요. [...] 그런 트라이아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이나 단계들을 한국에서도 좀 하면 좋겠다." (MA027)

"예전에는 이 지역이 고립이 돼 있어서 트라이아웃 같은 걸 해도 이게 일반 관객들이 다른 데서 찾아오기 힘들었더라면, 수도권은 좀 트라이아웃하기에 좀 괜찮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MA026)

5) 로열티 구조 세분화 필요

■ 창작자 위주의 저작권을 세분화하고 이를 일반화 시켜야 할 필요성 존재

- 인핸스먼트 제작 방식 활용 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임

"만약에 저작권 문제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권리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여기서 누가 하나만 나 안 할래, 그래도 뭔가가 다 무너지는 조건. 지금은 다 신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MA026)

"로열티 구조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야 돼요 개발 프로듀서는 기본적으로 더 큰 프로덕션에서 프로듀서가 바뀌더라도, 얘는 개발한 애한테도 어느 정도의 로열티가 간다라는 조건이 처음부터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사실 이런 악유가 없이. 그다음에 공공에서도 그렇게 참여를 해야 나중에 인핸스먼트까지, 그런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권리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MA027)

[그룹4] 관람객

1. 구성

■ G1 마니아 관객, G2 업계 관계자의 2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10] 소그룹 구성 : [그룹4] 관람객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마니아 관객	2024년 9월 25일(수), 12:00 ~ 14:00	아르코 예술극장 2층 회의실	분야 전문가 4인
G2. 업계 관계자	2024년 10월 30일(수), 12:00 ~ 14: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4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마니아 관객 : 대학로를 중심으로 마니아 관객 및 특정 작품에 몰입하여 반복 관람하는 문화가 형성됨

■ G2. 업계 관계자 : SNS 활동 증가로 관객 참여는 증가했으나, 뮤지컬 시장 전반적인 문제들은 해결 필요

나. 생태계 이슈

■ G1. 마니아 관객 : 마니아 관객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배우 의존, 특정 주제의 반복 등이 다양성 및 완성도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G2. 업계 관계자 : 티켓 쏠림 현상, 관극 문화, 정보 제공 채널 등 개선을 통해 뮤지컬 관객 확대 및 시장 다양성 확대 필요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마니아 관객 : 뮤지컬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장 확장을 위해 공공 - 신작 개발 지원, 제작사 - 새로운 홍보 방식 마련 등이 필요

■ G2. 업계 관계자 : 관객층 확대,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플랫폼 마련 필요

[그룹4] 관람객 : 뮤지컬 마니아 관객

1.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2:00 ~ 14:00

2. 장소

■ 아르코 예술극장 2층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11] 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뮤지컬 마니아 관객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F	여	30대	8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관객	MA028	여	30대	3년
	관객	MA029	여	20대	5년
	관객	MA030	여	30대	6년
	관객	MA031	여	20대	4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뮤지컬 마니아 관객 및 관람 문화
- 뮤지컬 관람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티켓가격 인상과 개선방안 모색
- 관람 문화의 쟁점
- 대학로 뮤지컬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대학로를 중심으로 마니아 관객 및
특정 작품에 몰입하여 반복 관람하는 문화가 형성됨

1) 뮤지컬 관람 빈도

■ 마니아 관객은 주로 대학로 중심의 뮤지컬 관람을 즐기고 있음

■ 뮤지컬 관람 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월 10~30편 사이의 작품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

"저는 사는 데가 여기 낙산 위쪽이라서 대학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가까워서 더 대학로에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많이 본 건 한 2022년도부터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달에 10에서 20개 정도는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A028)

"저는 2018년도부터 뮤지컬 보기 시작했고, [...] 2020년부터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대학로 계속 다니면서 연극, 뮤지컬을 보고 있고요. 극을 많이 볼 때는 한 달에 제일 많이 봤을 때 거의 30편, 종일반 뛰고 월요일 빼고 거의 다 본 적도 있어요." (MA029)

"저는 2019년 정도부터 공연에 관심을 갖고 뮤지컬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주 공연을 못 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MA030)

2) 특정 작품 반복 관람 관련

■ 특정 작품에 깊게 몰입하며 한 작품을 반복 관람하는 스타일로 뮤지컬 장르를 즐기고 있음

"뮤지컬에 관심을 가진 건 한 17년도, 18년도 그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지 않던 시기라 공연을 거의 못 봤었고, 2019년에 서울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꾸준히 보고 있어요. 간혹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만나지 못할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보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작품이 있을 때는 한 달에 열 번 이상 보게 됩니다." (MA031)

나. 생태계 이슈

마니아 관객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배우 의존, 특정 주제의 반복 등이 다양성 및 완성도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1) 마니아 관객 의존 관련

■ 소극장 공연의 마니아 관객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 마니아 관객에 의존한 홍보 전략으로 일반 관객의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소위 덕극이라 불리는 공연들은 최소 90% 이상 마니아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반 관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MA030)

"마니아 시장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관객은 공연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느껴져요. 홍보도 마니아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일반 관객들이 공연이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MA028)

2) 특정 주제의 반복

■ 특정 주제, 비슷한 코드의 반복 대신 다양한 주제의 공연 제작 필요

- 러시아, 사극, 퀴어 등의 특정 주제의 반복으로 주제의 다양성 부족

"뭔가 또 색다른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최근에 공연들이 비슷한 코드로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MA028)

"소극장에서 러시아나 사극 같은 특정 코드가 반복될 때 색다른 극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여기도 러시아, 저기도 러시아 같은 주제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MA030)

3) 높은 티켓 가격

■ 높은 티켓 가격이 일반 관객의 접근성을 제한하며, 관람 기회를 저해시키고 있음

- 할인 정책 확대 및 공공 지원을 통해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뮤지컬을 보고 싶어도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극장 작품의 경우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이 들어서 부담이 크다고 느껴요." (MA028)

"할인 이벤트나 청소년 관람권 같은 제도가 좀 더 확대되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뮤지컬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MA030)

4) 작품의 완성도 관련

■ 작품의 완성도 높은 구성이 아닌, 배우의 연기력(애드립 등)에만 의존하는 작품은 관객에 대한 만족도를 낮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잘 짜여진 극을 좋아하는데, 애드립에만 의존하는 작품들은 일반 관객들에게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극마다 가사와 애드립이 달라서 매번 다른 극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배우 연기력에만 의존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MA029)

5) 공연 무대, OST 등 저작권 침해 관련

■ 공연 무대, 음원 등을 정식 콘텐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 영상 촬영, 녹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음원, 무대 영상 등을 정식으로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 제작을 근절하고, 관객의 몰입도 및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넘버가 좋아서인데, 창작 뮤지컬의 경우 음원 사이트에서 듣기가 힘들어서 OST를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연을 생각하는 데 넘버가 필요하거든요." (MA028)

"음원을 정식으로 제공하지 않다 보니 불법 녹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 작품을 더 오래 기억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OST나 공연 영상 같은 콘텐츠가 지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MA03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뮤지컬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장 확장을 위해
공공 - 신작 개발 지원, 제작사 - 새로운 홍보 방식 마련 등이 필요

1) 제작사 차원에서의 새로운 홍보 방식/채널 마련 필요

■ 뮤지컬 공연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마니아 관객에서 나아가 일반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 및 홍보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 관객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연 정보 홍보 필요

"공연 시장을 확장하려면 마니아 중심을 넘어 일반 관객의 관심을 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더 나은 홍보 방식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A031)

"마니아 중심의 홍보와 제작만으로는 새로운 관객층 개발이 어렵다고 봐요. 다양한 채널로 공연 정보를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A030)

2) 공공차원에서의 신작 개발 지원 필요

■ 제작사가 다양한 신작을 만들어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차원에서의 더 많은 지원제도 마련 필요함

"마니아 시장뿐 아니라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는 제작사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지원하는 데에서 공공기관이 더 나설 필요가 있어 보여요." (MA029)

[그룹4] 관람객 : 업계 관계자

1.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2:00 ~ 14: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12] 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업계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평론	MA032	남	30대	7년
	제작사	MA033	남	40대	29년
	제작사	MA034	여	40대	20년
	평론	MA035	여	30대	7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관객 변화양상 및 증감 추세
- 뮤지컬 마니아 관객 현황 및 균형있는 관객층 개발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관객 개발 : 타겟 대상과 방식
  : 대학로 뮤지컬 & 타켓 관객, 스타 캐스팅, 영상 매체의 영향력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SNS 활동 증가로 관객 참여는 증가했으나,
뮤지컬 시장 전반적인 문제들은 해결 필요

1)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 증가

■ 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의 SNS 활동 증가로 뮤지컬 정보를 소비하고, 참여하는 관객이 증가하고 있음

■ SNS 성격에 따라 관객층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인스타그램의 경우 10대~4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사용하지만, 트위터는 마니아층 위주로 사용함

■ SNS 외에도 팝업스토어에 참여하거나 배우를 서포트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관객이 증가함

"인스타그램을 통해 뮤지컬 정보를 소비하는 관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관객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니아 관객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라이트한 관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A035)

"과거에는 조용히 관람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관객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SNS나 팝업스토어 참여 등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관객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서포트를 하거나 배우 서포트를 하는 모습들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객층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MA032)

2) 뮤지컬 관람 관객 감소

■ 실제 현장에서 뮤지컬 관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대공연장 관람 관객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의견이 나옴

■ 코로나19 이후 고령 관객층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특정 세대 관객층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나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관객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피스 자료에서는 관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현장의 관객 감소는 매우 체감됩니다. 특히 대극장 중심의 관객 감소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MA033)

"코로나 이후 60~70대 관객층이 대거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공연장에서 점차 사라졌고, 트로트 팬덤 문화로 옮겨갔다고 봅니다." (MA034)

3) 서울 중심의 집중 현상

■ 서울 중심의 뮤지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뮤지컬 생태계의 지역적 다양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서울의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 관객 규모가 크더라도 실제로는 축소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모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이라서요." (MA032)

4) 티켓 가격 상승

■ 티켓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객들의 공연 선택 폭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티켓 가격 상승으로 연간 관람 가능한 작품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예전에는 연간 4편을 관람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산 때문에 2편으로 줄어들어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티켓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객들이 정말 보고 싶은 작품만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뮤지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A034)

"티켓 가격이 올라 관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작품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관객이 연간 40만 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예전에는 4편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2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MA035)

나. 생태계 이슈

티켓 쏠림 현상, 관극 문화, 정보 제공 채널 등 개선을 통해 뮤지컬 관객 확대 및 시장 다양성 확대 필요

1) 배우 중심의 티켓 쏠림 현상

■ 배우 중심의 티켓 쏠림 현상으로 인해 특정 배우나 콘텐츠로 관객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특정 배우가 동시에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있음

> "작품보다는 누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특정 배우나 콘텐츠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우 개인이 주는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특정 배우가 동시에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MA032)

2) 관객 유입 관련

■ 상위 랭킹 공연으로 관객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다양한 작품에 새로운 관객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음

> "상위 랭킹에 있는 공연에 관객이 쏠리고 있으며, 새로운 관객을 유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관객들이 다양한 공연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MA033)

3) 관람 문화 관련

■ 지나치게 경직된 관극 문화가 새로운 관객 유입을 제한하며, 공연장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국의 관극 문화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새로운 관객을 유입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람 중 작은 소음도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반 관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공연장에 오지 않게 됩니다." (MA034)

4) 대극장 매출 감소 관련

■ 대극장의 매출 감소로 인해 작품의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작품이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조성됨

> "대극장에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작품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소문을 통해 작품이 뒤늦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이 사라졌습니다." (MA034)

5) 정보 제공 채널 부족

■ 뮤지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부족하여 관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매처 랭킹, 일부 SNS 정보가 있으나, 관객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정보는 아님

■ SNS 기반 정보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요즘 관객들은 뮤지컬 작품의 서사, 캐릭터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주는 정보 제공 플랫폼(채널)은 부족한 상황임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연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정보 채널이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예매처의 순위 데이터나 일부 SNS 정보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것이 관객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정보는 아닙니다." (MA033)

"SNS는 검색 기반이 아니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묻히는 특성상 관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MA035)

"작품의 서사나 캐릭터 배경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기를 했는지 등 디테일한 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A03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관객층 확대,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플랫폼 마련 필요

1) 신규 관객 유입 관련

■ SNS를 활용하여 마니아 관객 외에도 가볍게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관객층을 확대하고, 뮤지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SNS는 관객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라이트하게 뮤지컬을 즐기는 관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1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들도 생기면서, 이런 계정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A032)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라이트한 관객층을 깊이 있는 관객층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A035)

2) 균형있는 관객층 개발 관련

■ 지역 관객층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관객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방 관객 개발과 해외 관객 유입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관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은 장기적인 관객층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MA034)

3) 공공플랫폼 채널 마련 필요

■ 공공 뮤지컬 플랫폼을 마련하여 생태계에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뮤지컬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장
-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
- 제작사와 관객을 연결하여 관객의 접근성 확대

■ 공공 뮤지컬 플랫폼을 통해 관객의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공연 추천 서비스 제공 필요
- 관객의 접근성 확대

"뮤지컬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과 관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은 관객층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MA032)

"다양한 공연과 관객 간 연결을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작사와 관객을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 공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033)

"뮤지컬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필요하며, 이를 공공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관객들이 뮤지컬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MA035)

"공연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객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추천하는 앱이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선호하는 공연의 요소를 입력하면 추천 공연이 나오는 방식으로 관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A033)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1. 구성

■ G1 공공지원, G2 민간지원, G3 공공, 민간 투자기관 관계자 3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13] 소그룹 구성 :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공공지원	2024년 11월 6일(수), 13:00 ~ 15: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4인
G2. 민간지원	2024년 10월 23일(수), 11:30 ~ 13:30	대학로 1층 회의실	분야 전문가 3인
G3. 투자기관	2024년 11월 6일(수), 16:00 ~ 18: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분야 전문가 4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 G1. 공공지원 : 각 기관별로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뮤지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G2. 민간지원 : 신진 창작자 중심 지원, 성장 기회 및 성과 측정 시스템 등의 부재가 민간지원 기관이 느끼는 생태계 한계점으로 나타남

■ G3. 투자기관 : 수익률 한계로 민간 투자 제한, 공공 가치 평가 연계 강화와 중소 제작사의 투자 허들 개선 필요
제작비 관리 미흡, 공공제도의 낮은 효과성, 투자금 활용성 제고 등 개선 필요

나.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공공지원 : 2차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예산 확대, 공정한 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한 뮤지컬 생태계 개선방안 마련

■ G2. 민간지원 : 모든 창작자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필요
공공 - 민간 지원 기관 간 상호보완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

■ G3. 투자기관 : 공공 - 민간 협력 강화로 뮤지컬 산업 투자 안정성 및 전반적인 제작 환경 개선 필요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지원 관계자

1.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13:00 ~ 15: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14]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 공공지원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공공	MA036	남	-	26년
	공공	MA037	남	30대	10년
	공공	MA038	남	40대	12년
	민간	MA039	여	50대	20년 이상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기관별 뮤지컬 지원 현황과 특징
- 공공지원의 중점 타겟 대상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정책영역에서 바라본 뮤지컬 분야
- 지원 정책의 전문성, 체계성 강화 필요성
- 틈새 지원영역 : 뮤지컬 분야 조력자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각 기관별로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뮤지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 공공차원에서의 지원 현황

■ (예술위) 창작산실 지원을 통해 창작 뮤지컬 시장이 확장되었으나, 창작 뮤지컬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 제작사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옴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라이센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또 대형 작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시장 안에서 창작 뮤지컬이 많은 시장을 넓혀가는데, 지평을 넓혀가는 데 지금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창작산실 같은 경우도 올해 신작을 제작하면 프로덕션이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 이 창작산실이 국고 보조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분량만큼만 정산을 하시기 위해서 최소 단위 10% 또는 좀 많은 뮤지컬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30%까지도 쓰시거든요, 자부담 범위를. 그런데 그걸 다 정산하셔야 돼요. [...]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프로덕션이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용들이 없고" (MA036)

■ (예경)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창작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해외 진출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창작의 범위에서도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해외 진출 사업을 운영한 지가 3개 년 차인데. 3개 년 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창작에서부터 해외 진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겠다는 논의와 내부 리뷰 결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MA037)

■ (콘진원) 뮤지컬 장르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 규모가 타 장르에 비해 작은편이나, 뮤지컬 장르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규모도 키울 계획이 있음

"저희는 일단 지원 장르에서 뮤지컬이 메인 장르는 아니라서 좀 저희가 지원을 막 확장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갈수록 뮤지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긴 하거든요. [...] 저희도 이제 좀 괜찮은 뮤지컬을 지원하려면은 지원금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MA038)

2)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제도 체감

■ (예술위)

- 제작사로서 창작산실을 통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투입 대비 수익성이 적어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창작자 중심으로 지원제도가 바뀌어 가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음

"아마 제작사에서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은 게 아마 창작산실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제작비의 많은 부분은 작품 발굴 뿐만 아니라 제작비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사로서는 신작을 그냥 맨땅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품도 보완을 하고, 제작비도 좀 절감을 하고, 2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창작산실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점점 창작자 중심으로 지원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MA039)

■ (예경)

- 예경의 유통지원 프로그램, 기타 지원 제도들은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주고, 제작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음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극장, 창작 뮤지컬은 대학로에서 공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2의 수익원을 창출하기가 소극장은 참 어려운 편이에요. 이런 유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로드웨이 가서 우리가 공연을 올린다라는 것은 거시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작품이 좀 확장되어 보이고 관객을 좀 넓히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도 굉장히 있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MA039)

■ (콘진원)

- 콘진원의 지원사업 규모가 작아 가장 타 기관에 비해 제도 활용을 가장 적게 하고 있음

"콘텐츠진흥원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곳이긴 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수행했던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었어요. 당연히 수행했던 단체가 올해도 하면 성과가 훨씬 좋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창의인재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항상 했던 곳이 안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새로운 곳이 도전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MA039)

나.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2차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예산 확대, 공정한 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한 뮤지컬 생태계 개선 방안 마련

1) 2차 제작 지원 사업 강화

■ 2차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을 더욱 발전 시킬 필요가 있음

"2차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작품을 디벨롭하거나 사이즈업 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25년도에 작품을 올릴 수 있게끔 하게 되었고요. 해당 사업의 시행 연도는 그 작품의 동시대성과 작품의 가치가 오래 지나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2차 제작에 있어서 제작에 대한 비용 발생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범위를 3년으로 기간을 두어서 진행하려 합니다." (MA036)

2) 해외 진출 지원

■ 창작진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올해 시범적으로 12월에 일본에서 하는 글로벌 송라이터 쇼케이스에 참가하는 창작진을 모집했고요. 이 창작진의 선발은 K-뮤지컬 국제마켓에서 미완성 작품 피칭하는 걸 통해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창작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MA037)

3) 지원 예산 확대

■ IP 다각화와 지원금 확대를 통해 뮤지컬 생태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IP 다각화 측면에서 이쪽 예산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최대해서 2억에서 5억으로 늘려봤거든요. 늘리니까 이제 어린이 뮤지컬 말고도 큰 뮤지컬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지원 예산 확대는 단순히 작품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창작자와 제작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산 증액을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뮤지컬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A038)

4) 유통 지원 사업 확대

■ 유통 관련 공공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 예경 유통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투어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작품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창작산실이 해왔던 성과는 계속 이어가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A036)

5) 공정한 지원제도 심사 기준 마련

■ 기존 수혜기업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제작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공공 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이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039)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1.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11:30 ~ 13:30

2. 장소

■ 대학로 1층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15]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3)	민간	MA040	여	40대	5년
	민간	MA041	남	40대	12년
	극작	MA042	여	30대	10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민간 지원단체 현황 및 특징
  : 지원방식 설계 배경과 미래 방향
  : 민간 vs 공공지원 체감도 차이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중점 지원대상 및 지원·육성 방식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신진 창작자 중심 지원, 성장 기회 및 성과 측정 시스템 등의 부재가 민간지원 기관이 느끼는 생태계 한계점으로 나타남

1) 민간지원 기관으로서의 지원 현황

■ 민간지원 기관이지만 '공익'의 성격을 띄는 재단으로서 신진 창작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획일적인 지원제도가 아닌 창작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제도 제공

"저희는 공익재단으로서 대중문화 소외 영역의 창작자들을 공익적 목적에서 키우는 역할을 하자고 정의했어요. 이를 통해 신인 창작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초기에는 시나리오 작가, 인디뮤지션, 청년 뮤지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했고, 이후 신진 창작자 위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MA040)

"OO재단은 창작자 중심의 맞춤형 개발을 목표로 했어요. 창작자와의 스킨십을 통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원하는 멘토링이나 자문을 유연하게 제공하려 했습니다. 작품마다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창작자에게 맞는 지원이 중요했습니다." (MA041)

2) 신진 창작자 중심의 지원 제도

■ 신진 창작자 중심의 지원제도는 많으나, 기성 창작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임

"2021년부터는 신진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성 창작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이전에는 신인 중심이라 경계가 모호했고, 작품을 한두 번 만든 창작자들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MA040)

"신진을 넘어선 창작자나 재개발이 필요한 작품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원 사업이 신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후 단계의 창작자들은 기회가 줄어듭니다. [...] 낭독 공연이나 쇼케이스로 끝난 작품들이 더 발전할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품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후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MA042)

3) 창작자의 성장 기회 제공 부재

■ 창작자들의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함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트라이아웃에서 성과가 없으면 공공 지원은 바로 끊깁니다. 창작자가 작품을 계속 발전시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MA041)

4) 지원제도 성과 측정 시스템의 부재

■ 뮤지컬 개발 과정 특성상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지원제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장르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뮤지컬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 개발을 잘해도 시장 진출까지의 과정이 길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저희 KPI는 창작자가 공연 제작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인데, 사실 이런 성과 측정 방식은 창작 뮤지컬의 긴 개발 주기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MA040)

나. 개선방안 및 공공지원

모든 창작자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필요

1) 기성 창작자 / 후속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신진을 넘어 기성 창작자도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지원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작품을 개발하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창작자는 신진 단계를 넘어도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사업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뮤지컬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라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 한 번 지원받은 작품도 재개발할 수 있는 후속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음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MA042)

"1년 과정이 끝난 후에도 창작자들이 실제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연이 계약 단계에 접어들면 추가 지원을 통해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MA040)

2) 창작자 맞춤형 지원제도 강화

■ 창작자, 작품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창작자 맞춤형 멘토링, 자문 제공
- 작품의 특성에 맞춘 지원 방식 제공 등

"창작자가 원하는 멘토링이나 자문을 제공하며, 작품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창작자 중심으로 모든 지원 방식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MA041)

"작품별로 원하는 멘토링,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어요. 창작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지원을 진행하면서 더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MA040)

3) 창작자 성장 시스템 개발 필요

■ 트라이아웃제도 도입을 통해 창작자들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작품이 바로 성공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필요

"트라이아웃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키고, 실패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에서 '컴 프롬 어웨이'처럼 한 번 실패한 작품도 다시 기회를 얻는 시스템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A041)

다. 공공지원

공공 - 민간 지원 기관 간 상호보완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

1) 공공 - 민간 차별화 필요

■ 공공과 민간지원 기관 간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 지고 있어 공공 - 민간 간 차별화된 지원제도,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공공단체에서 비슷한 창작 뮤지컬 개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어서 민간 단체로서의 차별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인 창작자 중심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MA040)

2) 공공 - 민간 상호보완 필요

■ 공공(창작자 교육) - 민간 기관(창작 과정에 필요한 환경 지원) 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함

"공공은 창작자 교육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은 창작 과정에 필요한 환경과 적절한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로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MA041)

3) 공공지원의 유연성 강화 필요

■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 지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공공 지원은 형식과 규제에 얽매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A042)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 민간 투자기관

1.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16:00 ~ 18: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3. 참석자 명단

[표 2-16]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공공, 민간 투자기관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민간	MA043	남	30대	7년
	민간	MA044	여	40대	11년
	제작사	MA045	남	40대	22년
	공공	MA046	여	30대	3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뮤지컬 투자 가치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 과정
- 뮤지컬 투자(사) 현황
- 뮤지컬 투자 시 투자사·제작사의 입장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뮤지컬 투자 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수익률 한계로 민간 투자 제한, 공공 가치 평가 연계 강화와
중소 제작사의 투자 허들 개선 필요

1) 민간 투자사 현황

■ 뮤지컬 산업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제작비 회수 구조, 콘텐츠 투자 수익률의 한계로 민간 펀드, 자본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임

■ 뮤지컬은 작품 규모에 따라 관객 수, 수익 등이 예측 가능하여 투자 리스크는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의 상한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음

"공연 관련 투자에서도,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투자 결정이 어렵습니다. 수익률도 원금 수준이거나 약간의 이익을 보거나, 대부분이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책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 영화나 공연 쪽에 투자하겠다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A043)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높은 예측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초연이더라도 규모, 극장, 캐스팅 등에 따라 관객 수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의 상한도 명확해서 큰 폭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MA044)

2) 공공 투자 현황

■ 가치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계 펀드의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현재 약 60% 이상의 가치평가 콘텐츠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저희는 가치평가 보고서를 통해 연계 펀드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사와 제작사 간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의 연계 펀드가 가치평가를 받은 콘텐츠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MA046)

3) 제작사 현황

■ 중소규모 제작사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투자 유지를 위한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제한적인 상황임

- 2005년 ~ 2010년도까지는 뮤지컬 시장 투자에 대한 경험 및 데이터가 적어 비교적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금융위기를 겪으며 현재는 투자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나옴

"일반적인 대부분의 뮤지컬 제작사, 중소규모 제작사들은 투자를 받기가 되게 어렵고 허들이 있고, [...]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캐스팅이 되게 중요한 투자의 조건이 되다 보니. 그 캐스팅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작품의 규모나 성격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 투자사들한테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제작사는 실제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MA045)

나. 생태계 이슈

제작비 관리 미흡, 공공제도의 낮은 효과성,
투자금 활용성 제고 등 개선 필요

1) 민간 투자사 차원

■ 제작비 초과분에 대한 정산 및 회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제작사-투자사 간 합의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과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경험이 부족한 일부 제작사의 경우, 투자 유치 및 자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공연 만들고 공연 올리고 그러는 과정들에서 쓴 비용들이랑 그런 거를 다 넣기도 힘들고 증빙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 약속한 제작비를 초과한 금액은 보통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MA043)

"투자 유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받아서 이거를 별도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고 [...] 회계법인 통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 안 그런 분들도 한쪽에는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MA044)

2) 공공 투자 차원

■ 기관 내 가치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었지만, 제작사 등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과 인식이 부족해 제도의 실제 효과성은 낮음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 특히 제작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MA046)

3) 제작사 차원

■ 초기 개발 자금 조달 시 자본, 융자, 크라우드 펀딩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은 제작보다는 홍보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됨

"초기 개발 자금을 조달할 때 대부분 자기 자본, 융자, 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제작비 조달보다는 홍보 목적에 가깝습니다." (MA04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공 - 민간 협력 강화로 뮤지컬 산업 투자 안정성 및 전반적인 제작 환경 개선 필요

1) 제작비 추가 지원 관련

■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작비 초과분 발생 시 제작사와 투자사 간 사전 동의 절차를 공식화하여 초과 제작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 추가 제작비가 필요하다면 제작사가 투자사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면 초과 제작비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MA043)

2) 경영/자금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중간 단계 제작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경영, 자금 관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예전에 예경에서 경영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를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제작사의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MA044)

3) 안정적인 투자 단계 구축 필요

■ 공공 지원이 초기 작품 개발 단계에 집중되어 중소 제작사들에게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초기 단계 외에 후속 단계에서도 투자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구조 구축 필요

"초기 단계에서 공공지원 사업으로 작품을 개발하고, 후속 단계에서 투자 연계를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면 중소 제작사의 투자 유치가 용이할 것입니다." (MA045)

4) 공공 - 민간 투자의 결합

- 공공 펀드의 제작비 관리와 가치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뮤지컬 산업 내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공공 펀드가 뮤지컬 제작 환경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과의 매칭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지원금과 민간 투자가 적절히 결합하여 제작사와 투자사 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공공 펀드 내에서 가치평가를 받은 콘텐츠가 전체 투자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MA043)

"문체부 예산과 민간 매칭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제작사와 투자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MA046)

"공공지원금과 투자금이 제작비에 섞여 들어가는 건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지원금을 통해 제작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금을 연계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MA044)

[그룹6] 지역 뮤지컬 관계자

1. 일시

■ 2024년 12월 5일(수), 15:00 ~ 17: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3. 참석자 명단

[표 2-17] 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뮤지컬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지역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민간	-	MA-A	남	50대	23년
	공공	-	MA-B	남	50대	23년
	공공	-	MA-D	여	40대	15년
	민간	-	MA-E	-	-	-
참석자(n=4)	공연장	대구	MA047	남	40대	10년
	공연장	부산	MA048	남	50대	20년
	축제	대구	MA049	여	40대	15년
	공연장	대전	MA050	남	5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지역 뮤지컬 제작·유통 및 시장 현황
- 지역 뮤지컬 전문유통 단체 및 공공 공연장 현황과 개선방안
- 지역 뮤지컬 지원사업 현황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창제작 유통지원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 전용 공연장
- 창작 인프라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지역은 관객 부족, 서울 중심 구조, 소극장 등의 한계로
장기 공연과 지속적 유통이 어려운 상황임

1) 장기 공연의 부재

■ 공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부족 및 경쟁력 문제로 장기 공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관객층 및 마케팅이 라이센스 공연에 치중되어 있어 경쟁력 부분에서 한계가 있음

"대구의 경우는 천석 이상의 극장이 꽤 많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오페라 하우스, 계명아트센터, 아양아트센터 그리고 400석 규모의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등 공연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제작자들이 장기 공연하기에는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관객층이 많이 없으니까요 [...]. " (MA047)

2) 작품 지속, 재연 관련

■ 지역 창작 작품은 지속성이 부족하고, 서울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창작자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 창작 작품이 있어도 3~5회에서 끝나고, 창작진들도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인프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하더라도 그쪽에서 자리를 잡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프라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번 시도해볼 기회가 없으니 작품의 퀄리티를 따지기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MA049)

3) 제작 및 유통 관련

■ 지역의 경우, 민간 공연장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뮤지컬 유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소극장의 규모로는 뮤지컬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뮤지컬이 유통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드림시어터 같은 민간 공연장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드림시어터 외에는 민간 공연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MA048)

"소극장 시설과 규모가 뮤지컬 제작과 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280석 소극장에서는 뮤지컬 제작도 하고 초청 공연도 진행했었지만, 그 소극장을 폐관하고 160석, 100석 규모의 극장으로 가니까 뮤지컬은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시설과 규모의 한계가 지역 뮤지컬 제작을 어렵게 만듭니다." (MA050)

나. 생태계 이슈

지역 뮤지컬은 관객 부족, 자금, 유명 작품 위주의 유통 등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에 제한이 있음

1) 관객층 및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

■ 지역 공연팀 대상 기술 및 자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 쉽지 않음
- 제작비 문제로 창작 뮤지컬을 기피하고 있음

■ 관객층 확보가 어려워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작품 개발을 희망함

"지역 공연 팀들한테 기술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없으니까 BEP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작자들이 제작비 문제로 창작 뮤지컬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장 자체가 관객층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도시나 서울로 나갈 방법만을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MA047)

2)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다양성 부재

■ 시장 규모의 한계로 지역 창작 작품이 주목받기 어려워 유명 작품 위주로 제작되는 환경임
-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함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다양성이 망가졌고, 지역의 창작 작품이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지역 창작자들은 관객이 선호하는 유명 작품만 제작하거나 유통하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거나 시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A050)

3) 공연장 대관의 어려움

■ 지역 공공 공연장의 경우 유명 작품 위주로 대관을 해주고 있어, 유명하지 않은 작품은 대관하기 힘든 구조임
- 제작 환경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유명한 작품을 유치하게 됨
- 지역 창작작품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됨

"지역 공공 공연장은 이름 있는 작품들만 선택해서 대관하는 구조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작품은 대관조차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공연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결국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관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유명 작품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MA049)

"공공 공연장에서는 유명한 작품 중심으로만 공연을 유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창작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작품으로 관객을 유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때문에 창작 작품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MA04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역 뮤지컬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지역 창작극 기획, 유통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1) 산학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역 극단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창작 환경 구축 필요

"지역 창작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사업을 통해 창작 작품을 지원하고, 산학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극단과 학교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MA049)

2) 지역 창작극 우선 유통제도 마련 필요

■ 공연장이 유명 작품이 아닌 지역 창작극도 더 많이 유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지역 창작극 우선 유통제도 마련 및 지원금 지급 필요

"공공 공연장이 지역 창작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창작 작품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창작 작품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MA050)

"공공 공연장이 유명한 작품만 선택하기보다는 창작 작품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뮤지컬 생태계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MA048)

3) 공공극장의 기획 활성화 필요

■ 공공 극장의 기획, 제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뮤지컬 시장 확대 필요

■ 다양한 창작 작품 소개, 기획을 통해 지역 관객 대상 다양한 경험 제공 필요

"대관 극장이 아닌 기획 제작 극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획 제작 극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초청해 시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공 극장이 기획과 제작에 나서면 지역 주민들의 안목을 높이고 시장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MA050)

"공공 극장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명 작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 작품과 실험적인 작품을 소개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지역 뮤지컬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홍수연)

[그룹7] 주제별

1. 구성

■ G1 뮤지컬 비평, G2 라이선스 뮤지컬, G3 해외시장 진출의 3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18] 소그룹 구성 : [그룹7] 주제별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뮤지컬 비평	2024년 11월 22일(금), 10:00 ~ 12: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4인
G2. 라이선스 뮤지컬	2024년 12월 3일(화), 10:30 ~ 12: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2인
G3. 해외시장 진출	2024년 11월 26일(화), 11:00 ~ 13: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4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뮤지컬 비평 : 뮤지컬 장르 비평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 G2. 라이선스 뮤지컬 : 창작 뮤지컬 작품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 주류를 유지

■ G3. 해외시장 진출 : 아시아 시장에서 활약, 영미권 진출에 대한 지속적 도전

나. 생태계 이슈

■ G1. 뮤지컬 비평 : 아마추어 비평, 새로운 매체를 통한 비평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평의 날카로움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환경임

■ G2. 라이선스 뮤지컬 : 분야 전반적 기량 향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추후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

■ G3. 해외시장 진출 :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번역·계약·구매 구조 개선이 관건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뮤지컬 비평 : 비평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독자와의 접점을 늘려야 함

■ G2. 라이선스 뮤지컬 : 창작, 라이선스의 이분법 지양, 균형적인 지원 요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필요

■ G3. 해외시장 진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이전시 설립, 제작 퀄리티 제고, 장기적 지원과 교육 필요

[그룹7] 주제별 : 뮤지컬 비평

1.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00 ~ 12: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3. 참석자 명단

[표 2-19]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 뮤지컬 비평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평론	MA051	여	50대	20년
	관객	MA052	여	30대	3년
	제작	MA053	여	40대	19년
	기자	MA054	남	50대	7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뮤지컬 비평의 현재 및 한계, 기대 역할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뮤지컬 장르 비평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1) 한국 뮤지컬 비평의 흐름

■ 한국의 뮤지컬 비평은 초기 단계부터 평론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음

"뮤지컬 평론은 명확히 평론 분야 안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평론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대부분 뮤지컬 평론은 홍보의 차원으로 존재하기를 제작사나 홍보사에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더 뮤지컬이 종이 잡지 형태로 있었을 때도 그 안에서 평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뮤지컬 평론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처음부터 조성되기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MA051)

“1세대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원종원 선생님, 조용신 선생님 등도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평론 일을 하셨던 거고, 이후에는 이분들이 만든 모델을 보면서 저같은 후속 세대들이 뮤지컬 평론장에 나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평론이라는 것은 홍보의 차원으로 판단되거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쓰여지거나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이고요.” (MA051)

2) 비평의 비중과 역할 축소

■ 지면에서 공연 리뷰의 비중이 감소하여 비평의 공간이 사라짐

■ 미디어 플랫폼이 신문, 비평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해졌고, 비평보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함

"근데 이 리뷰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신문 지면에서조차 그러니까 정면으로 리뷰를 쓰는 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면으로 리뷰를 쓰려면 [..] 뭔가 계기가 있어서 유일성을 띠지 않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 거의 저희도 없고요." (MA054)

“브로드웨이에서조차도 이 프레스 리뷰보다 오히려 소셜미디어 틱톡이나 특히 틱톡 이런 밈으로 퍼져나가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MA054)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리뷰가 힘을 발휘했었던 시대에 라는 거는 사실은 미디어의 플랫폼이 신문 지면 혹은 비평지 뭐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이미 모두가 모두의 의견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다변화된 상황에서는 하나의 리뷰가 어떤 권위를 갖고 예전처럼 받아들여지길 바라기는 어려운 것 같고” (MA054)

3) 상업성과 작품성

■ 상업의 성격이 큰 장르이므로 작품성, 흥행 성적 등 좋은 작품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근데 기자분들이나 평론가분들 역시도 이 작품과 이 연기자가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평론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즘에 저도 대학로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내가 만드는 작품이 과연 작품성과 흥행을 원하는 그 마음 사이에 어느 쪽에 더 가 있는가 [...] 어쨌든 상업 장르이기 때문에 뮤지컬은 예술 장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완벽하게 예술로 갈 수는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상업 장르로서의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작품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포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요." (MA053)

나. 생태계 이슈

아마추어 비평, 새로운 매체를 통한 비평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평의 날카로움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환경

1) 아마추어 비평 확대

■ 관객이 깊이 있는 평론보다는 접하기 쉬운 가벼운 리뷰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매니아 리뷰의 영향력이 증가함

"매니아들의 리뷰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개인 SNS 특히 트위터가 가장 활발하고 블로그, 연뮤갤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 대안평론 비평의 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는 이렇게 두 개 흐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051)

"내가 이런 미디어나 SNS를 공연 볼 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데 보면은 그 쓰시는 분마다 또 특징이 있거든요. [...] 저는 읽기 쉬운 거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공연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할 때는 이분 계정에 들어가서 좀 찾아보고 좀 이거에 대해 내가 공연 보고 난 다음에 리뷰를 보고 싶다 하면 이분 걸 찾아보고 그럼 그렇게 해서 제 취향대로 찾아볼 수 있는 게" (MA052)

2) 새로운 매체를 통한 비평

■ 글보다는 영상을 선호하는 세대로 변화하며 유튜브, SNS를 통한 콘텐츠가 늘어나고, 지면 상의 비평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SNS 비평이랑 유튜브 활용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뭘 안 읽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읽질 않으니까 읽어주던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런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면서 그건 점점 변할 수밖에 없는데" (MA051)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플랫폼에 맞춰 가지고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본다든지 약간 이렇게 뭔가 아니면 요즘에 또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뮤지컬 크리에이터라고 또 유명하신 분 또.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뮤지컬을 이제 홍보하고 이제 비평 리뷰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MA052)

3) 비평의 날카로움 부족

■ 제작사 및 창작자와의 관계로 인해 평론가들이 날카로운 비평을 하지 못함

■ 평론이 작품성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홍보와 상업적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보다는 홍보성 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평론 일을 하다보면 뮤지컬 현장의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관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진짜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작사, 작업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MA051)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품을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이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에서라도 어떤 작품을 비판하고 크리티컬하게 보는 게 전체 시장이 더 확장되는 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시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부지불식 간에 자기 검열이 작동되어 그 안에서 말을 편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더 흘러가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MA05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비평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독자와의 접점을 늘려야 함

1) 비평의 공적 역할 제시

■ 마니아층의 리뷰와 구별되는 비평이 추구해야 하는 역할 존재
- 공적인 영역에서 거시적인 방향성과 추구해야할 바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 평론을 통해 제작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비교 분석 등) 독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어야 함

"한국 뮤지컬이 좀더 다양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도모해야 하는지 하는 면에 뮤지컬 평론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마니아들은 미시적인 분석에 굉장히 능합니다. [...] 이런 미시적인 분석에 저도 가끔 도움을 받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평론은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지점과 다른 결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성과 스타일, 거시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들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MA051)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 과연 그 선진 뮤지컬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다른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과의 연관성이 있는지.그들의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식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작자가 다 파악할 수 없고 관객들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작품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비교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론가들이 해 주시면 너무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겠죠." (MA053)

2) 공식적인 양성 프로그램 마련

■ 따로 등단,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평론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함

"뮤지컬 평론 등단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에서 평론이 자라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면 평론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을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뮤지컬 매니아 혹은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뮤지컬에 관한 글을 쓰게 되면서 뮤지컬 평론가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MA051)

“등단 제도도 중요한데 사실 그 이전에 평론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와 그다음에 어떤 취향에 따른 글쓰기를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 그것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A051)

“그런 재능을 가졌거나 한 사람들도 그걸 쓴다고 해서 또 지면도 없어졌고 하니 그게 어딘가에 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가가 이 비평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평가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MA053)

3) 비평과 대중간 접점 제공

■ 대중이 비평을 접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해야 함

- 트라이아웃 공연 피드백, 공식 리뷰 채널 개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됨

"길고 의미 있는 글을 읽을 준비가 돼 있는 관객들이 있다면 그 관객들이 관객들을 길고 의미 있는 글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접점을 어딘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켓을 사는 과정에서든지 아니면 뉴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면이든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이 관객들과 리뷰가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계속 늘리려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MA054)

"예를 들어 한 한 문장 정도 한 문단 정도의 글을 누군가의 글을 붙이고 거기서 이제 링크를 하면 어디 관련 블로그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 읽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 5% 더 할인을 해준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객들이 리뷰를 읽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접점을 늘리고" (MA054)

"요즘에 또 트라이아웃 공연이나 리딤 공연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건 특히나 또 이제 많은 피드백이나 이런 게 필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걸 대외 활동이라도 좋고 누구로든 뭔가 비평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글을 남겨두면은 나중에 또 본 공연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그거를 찾아보고 비교점을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A052)

4) 깊이 있는 비평을 위한 지원

■ 음악, 미술, 스토리가 모두 존재하는 종합예술이고, 영화와 같이 쉽게 돌려볼 수 없는 뮤지컬의 특성상 진정성 있는 비평을 위해 영상, 대본 제공이 필요할 것임

- 유출 등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공공이 개입하여 인증 제도 등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왜냐하면 딱 한 번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두세 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과 만약에 협회 뮤지컬 협회나 이런 데 같이 협업을 해야겠죠. 뮤지컬은 한 번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거기 스토리도 당연히 너무 가장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완벽한 수준이 아니어도 그냥 프리뷰 때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우선 촬영해 놓는 그런 영상 정도라도 제공을 해서 아니면 하이라이트 30분짜리 편집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이 돼서 그거라도 좀 여러 번 보고 작품에 대한 깊이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MA053)

"이게 육화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 안에서 이 공연이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 정리하면서 야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비평 작성을 위한 공연 영상, 대본 등 요청) 저는 매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MA051)

[그룹7] 주제별 : 라이선스 뮤지컬

1.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10:30 ~ 12: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20]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 라이선스 뮤지컬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B	남	50대	23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2)	배급	MA055	남	50대	20년
	배급	MA056	남	5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 현황과 과제① : 시장 규모, 경쟁 및 변화추세
-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 현황과 과제② : 라이선스 뮤지컬 신작, 중소형 작품 제작 감소 추세 및 어려움
- 라이선스 뮤지컬 대상 공공지원 사각지대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라이선스 뮤지컬과 한국 뮤지컬의 발전 방향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창작 뮤지컬 작품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 주류를 유지

1) 라이선스 뮤지컬의 역할

■ 라이선스 뮤지컬은 한국 뮤지컬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라이선스 뮤지컬의 신규 작품 도입은 감소 추세이나, 기존 작품들은 지속적인 흥행을 보이고 있음

"2001년도에 저희가 이제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의 산업화의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한 25년 정도 흘러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25년 동안 한국 뮤지컬 산업을 성장시켰던 원동력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이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라는 말은 100% 인정해야 되고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MA056)

“지금 브로드웨이 차트 몇 개입니까? 41개입니까? 그중에서 한 20개 끊어서 보면은 기존 작 말고 신작 중에서 이걸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 시장이 줄어들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기존 작 중심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라이선스 뮤지컬이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MA056)

2) 창작 뮤지컬 비중 증가

■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창작 뮤지컬 초연 작품 수가 증가 추세임

- 그러나 아직까지는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

“시장의 60%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매출 탭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매출 규모도 계속 그 라이선스가 70~80%에 오랫동안 차지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6자로 내려온 것도 근래의 일이고 그래서 매출 비중도 많이 올라왔고 편수 측면에서는 (창작 초연 작품이) 지금 압도적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지 오래라 그 부분은 올해 하여튼 그 데이터는 좀 주목할 만해요.” (MA055)

“한국 창작 뮤지컬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 작품보다는 중소형 작품쪽으로 지금 계속 창작 개발이 되다 보니까, [..] 시장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는 되되 (라이선스 뮤지컬)신작은 예전보다는 횟수는 좀 줄어들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의 어떤 좀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MA056)

3) 라이선스 획득 경쟁 감소

■ 라이선스 획득 경쟁이 존재하지만 시장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과열되는 양상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음

"예전에 토니 어워즈를 하고 나면은 노미네이트 된 부분과 수상을 했었을 때 거기서 어떤 작품이 만약에 휩쓸었다 하면 듣지도 보지도 않고 그는 무조건 사 가지고 와야 된다는 시점도 있었었습니다. [...] 최근에도 없지는 않았었어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결정이 돼서 그런 현상은 그거는 시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저는 현상이라고 보지 그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 그런 형태의 작품은 이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MA056)

4) 관객의 이해도 상승

■ 과거에 비해 관객의 눈높이도 높아졌으며 이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국에서 뮤지컬이라는 게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 생태계 시장이 거의 전멸하고 아무것도 없었었던 시장에는 그때 그 작품들이 관객들한테 느껴졌던 그 느낌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소화되고 [...] 저희가 처음에 한 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건 들어오자마자 좀 될 건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이제 있는 것들은 또 저희가 또 반성을 좀 해야되는,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올리면 안 되는구나 관객들 충분히 이 제품 소비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올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종종 많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MA056)

나. 생태계 이슈

분야 전반적 기량 향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추후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

1) 배우, 스태프 기량 향상

■ 국내 배우와 스태프의 역량이 매우 향상됨

> “한국 배우들의 기량이 충분히 향상이 됐고 스태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스태프도 정말 한 보따리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부분적으로는 로컬의 어떤 파트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5년 동안 같은 라이선스 뮤지컬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MA056)

2) 공연장 부족

■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뮤지컬 발전을 위한 충분한 수의 공연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극장이 1~2개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 어떤 시야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극장의 제일 큰 지금 특징은 국공립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뮤지컬을 하는 사립극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 극장들이 뮤지컬에 허용해 주는 시즌은 1년에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절반 정도를 해주면 정말 이거 진짜 많이 해주는 극장들이에요. [...] 일단 뮤지컬계에서 본다면 반밖에 이제 쓸 수 없는 극장이기 때문에” (MA056)
>
> “그건 공급이(콘텐츠가) 넘쳐나서 늘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공연장이 부족하단 말을 하지 (좋은 공연장이 자기가 대관를 못 받아서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노원이나 디큐브나 LG 가라 하면 잘 안 가거든요. 공연장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1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시내 쪽에 1~2천 석짜리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어도 되지 않겠나 정도인 것 같아요.” (MA055)

3) 선순환 구조로 동반 성장 추구

■ 창작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이 서로 대치되는 구조가 아니며, 함께 성장해야 함

"돌이켜 보면은 그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성장할 수 있었던 충분한 저는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프로모션 환경 또는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환경 테크니컬 환경 이런 모든 환경들에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 라이선스와 창작을 혹시라도 아직까지 관련 부처나 이런 데서 창작 뮤지컬 활성화 창작 뮤지컬 활성화 말 너무 좋은데 그 반대어로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한 시장 성장을 좀 거리감을 두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MA05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 라이선스의 이분법 지양, 균형적인 지원 요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필요

1) 창작 뮤지컬의 정의 재정립

■ 창작, 라이선스 뮤지컬의 정의와 구분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라이선스 뮤지컬과 창작 뮤지컬에 대한 일단은 이분법이 시작이 스타트가 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선스 뮤지컬과 창작 뮤지컬의 우리가 지금 차이를 보면은 라이선스 뮤지컬의 음악과 대본을 외국 사람이 하고 예전에는, 그다음에 그 작품을 한국 사람이 하고와 그다음에 그 IP가 외국에 있냐 또는 한국에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창작 뮤지컬 및 라이선스 뮤지컬의 개념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지금 관점에서 토론되는 부분이라면 그 관점도 이제는 진짜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MA056)

"창작 뮤지컬 아닌 게 어디있냐부터. 그래서 한국 뮤지컬이라고 이걸 용어로 하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왕에 창작 뮤지컬이라는 다섯 글자가 관용어 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이걸 꼭 바꿔가면서까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라이선스 뮤지컬 용어의 정의도 많이 넣었었어요. 처음에" (MA055)

2)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한 지원 필요

■ 라이선스 뮤지컬의 가치를 인정하며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지원은 뮤지컬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함

"이제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그만큼 우리의 내재된 힘이 좀 생겼구나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선스 뮤지컬은 속성 자체가 아까 말한 돈이 되기 쉽게 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사온 것이라는 태생을 확 바꾸기는 힘들 거다. 그럼에도 이제 요새는 논 레플리카나 이런 준 창작에 가까운 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원 사업에 편입시킬 논의를 열어가자. 때가 됐다." (MA055)

"일단은 공고 자체에서 구분을 해서 창작 뮤지컬에 한하여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 지금 창제작 유통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예경에서 문체부 예경 문화예술위원회 이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구조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사이즈가 거의 한 300억 대 정도 되는 사업인데 거기 라이선스 뮤지컬은 신청을 못합니다." (MA056)

3) 인프라 확충

■ 공연장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극장 건립을 통해 시장의 자체의 성장을 지원해야 함

"극장 인프라와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뮤지컬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가 극장이 성장한 거 이렇게 협회도 자료로 만들고 이렇게 보면 블루 스퀘어가 생겼을 때 시점, 샤롯데가 생겼을 때 시점, 디큐브가 생겼을 때 시점 올라가거든요. [...]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극장은 좀 생겼으면 조금." (MA056)

[그룹7] 주제별 : 해외시장 진출

1.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21]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 해외시장 진출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민간	MA-A	남	50대	23년
	공공	MA-C	남	50대	30년
	공공	MA-D	여	40대	15년
	민간	MA-E	-	-	-
참석자(n=4)	국내	MA057	여	40대	10년
	국내	MA058	남	50대	25년
	중국	MA059	여	30대	7년
	일본	MA060	여	40대	12년

4. 주요 논의 사항

■ 뮤지컬 분야 내부적 요소
- 권역별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 뮤지컬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해외 진출 공공부문 지원사업 현황
- 해외 시장에서 원하는 교류 수요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아시아 시장에서 활약, 영미권 진출에 대한 지속적 도전

1) 아시아권 현황

■ 한국 뮤지컬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대형 제작사들이 한국 창작 작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한국 라이센스 작품이 꾸준히 공연되고 있음

"2010년 초기에는 일본에 워낙 좀 작은 제작사들이 한국 창작 작품들은 많이 샀는데요. 구매를 했는데 한 2020년 그 정도부터는 일본의 유명, 대표하는 큰 제작사들이 5개 제작사들이 있는데 그 제작사들이 한국 창작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사가 움직이는 곳은 관객이 움직여요. 그래서 관객이 지금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하고 주목. 그리고 뭔가 좀 멋있는 거다, 되게 질 높은 거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생성됐습니다." (MA058)

"2010년쯤이죠. 2012년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맘마미아 중국에서 제작했고 그래서 작품 진출보다는 일단 제작 같이 제작을 시작하는 걸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라이센스 작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은 2018년 2019년 중국 뮤지컬 시장 자체가 조금 활성화 발전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더 늘어나는데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한 한 20개 정도는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센스 작품 중에서 한국 작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MA057)

2) 영미권 현황

■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영미권 시장에서는 관객 취향과 시장 구조의 차이로 인해 허들이 존재함

"일단은 (영미권 시장 진출) 시도가 작품 준비도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 이제 한국 작가 작곡가들하고도 브로드웨이 갈 수 있는 작품들을 기획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창작진들의 풀이 발전해 왔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A056)

"지금 우리 창작진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로 무대의 주요 관객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품을 개발하는 방식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포커싱되어서 기획 개발된 작품들이 영미권으로 가기에는 허들이 높아요. [...] 사실 한국의 창작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영미권) 이해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화해야 되는 아니면 영어권에서 좋아할 수 있는 소재,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소통이나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미권 시장을 바라본다면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MA056)

3) 진출 계기 - 지원 사업의 도움

■ 지원 사업이 해외 진출의 계기가 된 사례가 나타남

"중국은 초반에는 이제 민간 CJ 통해서 [...] 19년도에 다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거 계기는 이 예술위원회에 있는 해외 공동 제작 지원 사업이 지금은 없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제작사랑 매칭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케이 뮤지컬 로드도 저희는 이렇게 시초가 다 지원 사업 통해서 했습니다." (MA055)

"저희가 영국을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는 중장기 사업이었어요.3년짜리 사업이거든요. 단체 지원이고 [...] 맞아요 네 영미권 쪽에서 좀 많이. 왜냐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네트워킹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MA055)

4) 진출 형태

■ 일본의 경우 스몰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나 래플리카 방식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연출이 일단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관객들이 나이대가 좀 어리기 때문에 여백이 없어요. [...]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70대가 거의 메인 그 관객이다 보니 되게 오버하게 느껴요. 한국 그대로 가면 한국 연출이나 그래서 일본 연출들이 일본 현지에 잘 맞는 여백이 있고 그리고 상상하게 만드는 연출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스몰 라이센스를 일단 선호하고 제작사들도 한국 그 연출님 오시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약간 선입견도 있어요." (MA058)

"제 생각은 일단 중국 가서 이제 공연하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연 형태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에는 스몰 라이센스로 가져가는 거의 다 스몰 라이센스로 가져가고 그리고 제작사 성향도 있지만 조금 공공기관 속성을 띠는 그런 제작 주체라면은 예를 들면 뭐 상해대극원이나 상해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다른 연출 한국 연출을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조명, 무대, 의상 등 구체적인 디자인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요." (MA057)

4) 창작진의 해외 진출

■ 작품이 아닌 창작진이 진출하는 새로운 흐름도 관찰됨

"새로운 흐름으로는 창작진이 수출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일본에서는 없기 때문에 뮤지컬 전문적으로 작곡할 수 있는 인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국 창작을 많이 작곡하고 계시거나 대본 쓰고 계시는 탑 창작진들이 지금 일본 큰 제작사를 위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큰 제작사들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MA058)

나. 생태계 이슈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번역·계약·구매 구조 개선이 관건

1) 번역, 현지화, 계약 관련 어려움 존재

■ 번역과 현지화 과정에서 창작진과 현지 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 계약 과정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번역과 관련된 인력들의 풀이라든지, 또는 현재 진행했을 때 계약서 우리랑 좀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055)

“테이블별로 극장별로 혹은 매출별로에 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인지가 됐었으면 계약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서로 중간에 마찰이 없었을 텐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적정하게 일본에서 받는 거의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MA055)

“우리가 수익적으로 더 하려면 이런 회계적 전문가들이 이런 보완들을 좀 해내주면 훨씬 더 좋은 거지 검증 방법이든 아니면 이런 요구사항이든.” (MA056)

2) 한국 뮤지컬 구매 구조 개선

■ 일본과 중국에서는 작품 구매와 유통 시스템의 부족으로 정보 전달이 제한적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필요

“MTI나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제작사들한테는 객관적인 창작 지금 하고 있는 리스트라든지, 그리고 개발 중인 그 리스트라든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인맥이 없으면 못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의 약간 좀 작은 제작사지만 뭔가 좀 열정이 있고, 근데 한국 창작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제작사들이나 그분들한테도 오픈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웰컴 대학로나 할 때는 행사에 많이 투자는 하시는데 그 이후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지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판권 구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MA058)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일단은 뭐 인맥이 있어야지 지금 거의 구매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또 약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작품을, 그러니까 나오는 신작품들에 대한 소개 하이라이트 영상 짧게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인 작품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MA057)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이전시 설립, 제작 퀄리티 제고, 장기적 지원과 교육 필요

1) 에이전시 설립 및 매뉴얼 구축

■ 한국 뮤지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전시 설립과 매뉴얼 구축이 필요함

- 사업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공공 측면에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우리 한국 뮤지컬 작품들을 에이전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죠. 그게 이게 사업적으로 시장이 작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비즈니스로 누군가가 이걸 하기에는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MA056)

"오히려 이제 좀 잘 알지 못하는 시장에 잘 알지 못하는 파트너랑 했을 때는 계약을 떠나서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이 좀 나와 있어서 참고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레플리카일 때 스몰 라이센스일 때 이런 것들이 좀 정량화되어 있는 매뉴얼들이 좀 더 나오면 좋죠." (MA055)

2) 래플리카 목표, 제작 퀄리티 상승 필요

■ 스몰 라이선스 중심의 수출을 넘어 래플리카를 목표로 재원을 투자하고 만듦새를 높여야 할 것임

"이제 레플리카가 가야 돼. 레플리카가 가려면 작품의 만듦새가 훨씬 더 꼼꼼하고 제작비 투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창작 작품들의 한계는 레플리카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작 만듦새가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그게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유럽까지 갈 때 레플리카로 가는 목표가 돼야." (MA056)

3) 긴 호흡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

■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작품이 재연까지 거의 못 들어가요. [...] 그래서 뭐 진출만 생각해 가지고 그 정말 빨리 빨리 진출하려고 그런 극장이라든지 베뉴 브로드웨이나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 제작사들은 이거 생각 안해요. 빨리빨리 가고 싶어해요." (MA058)

"저는 이제 해외 영어권은 진짜 더 긴 호흡을 가야 된다. 여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번 그렇게 올라가면 그다음 공연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성급하게 하면은 안 되고 [...]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선례가 필요한데 근데 그 선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A056)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년간 지원 사업이" (MA055)

4) 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관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창작진과 프로듀서를 위한 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금 창작진들이 가서 보는 거 [...]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머리도 식히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작품을 구상하고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국을 같이 갔었거든요. 보고 싶었던 새로운 연극도 한두 편 보고. [...]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된 거죠. [...]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작진들한테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MA056)

"그 젊은 창작진이 그 롤 모델이 대학로밖에 없어요. [...]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대학로 뮤지컬이 약간 첫 번째 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할 때도 타겟은 무조건 20대 여성이고 BL 코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타겟을 먼저 우선을 하는 거예요. [...] 창작진이 아니죠. 거의 대기업에 있는 마케팅 부서의 직원인 줄 알았어요." (MA0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